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이주자의 노부모에 대한 ‘초국적 돌봄’: 광주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경학**

우즈베키스탄 독립 이후 심각한 실업과 자녀를 위한 미래의 불투명 및 우즈베크 중심의 민족주의 정책 등의 배출요인과 한국의 고임금과 재외동포에게 개방된 이민정책과 같은 흡인요인의 상호작용으로, 한국으로 국제이주 하는 고려인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 이주 후 고려인 성인자녀의 우즈베키스탄에 남겨진 부모에 대한 돌봄은 초국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 연구는 초국적으로 이산된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확대 가족 네트워크 내에서 한국에 체류하는 고려인 성인자녀의 본국에 남아 있는 노부모에 대한 초국적 돌봄 실천 양상을 규명하고 있다. 이 연구는 또한 한국의 성인 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초국적 돌봄 실천에 개입하는 다양한 분석 수준의 요인들이 타협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국제이주와 초국적 가족의 논의를 정착지 중심으로 함으로써 본국에 남아 있는 노부모의 시각이 간과된 기존 연구와는 달리, 이 연구는 자녀의 국제이주가 노부모에게 미치는 정서적 영향, 자녀의 초국적 삶과 돌봄 실천, 자녀와의 재결합의 전망 등을 ‘노부모의 시각’에서도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에서 ‘다중 지역적(multi-sited)’ 현지조사가 수행되었다.

〈주요개념〉: 초국적 이주, 초국적 가족, 초국적 돌봄,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노부모, 다중지역 현지조사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A2A01010857).

** 전남대학교 인류학과 교수

1. 들어가는 말

1) 연구 목적

국제이주에 관한 기존 연구는 민족 집단이나 공동체를 주요 연구의 단위로 간주하고 가족과 가구처럼 미시적 수준에서 행해지는 초국적 과정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Olwig 2002: 216). 같은 맥락에서 가드너(Gardner 2002: 191)는 초국가주의가 지닌 의미와 함의를 국제이주에 참여하는 평범한 사람의 입장에서 적절히 이해하기 위해 가구와 가족 내의 다양한 초국적 활동에 주목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기존 국제이주 관련 대다수의 연구들은 정착국의 시각에서 이주자의 사회·문화적 적응과 갈등 또는 고용 등을 분석한 경향이 있다. 특히 이주 당사자가 본국에 남아 있는 미성년 자녀나 노부모와 유지해온 가족관계나 유대를 규명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수에 한정되었다.

다양한 목적의 국제 이주자가 증가하면서 가족 구성원들이 국경을 두고 서로 떨어져 지내는 ‘초국적 가족(transnational family)’과 가족원 간의 ‘초국적 돌봄(transnational care)’의 실천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초국적 가족과 초국적 돌봄에 관한 기존 연구(Al-Ali 2002; Baldassar 2007; Bryceson and Vuorela 2002; Zontini and Reynolds 2007)에 따르면 ‘초국적 가족’은 국제이주로 가족 간에 떨어져 지내더라도 가족 공동의 복지와 가족이란 소속감을 지니고 살아가는 가족을 의미한다. 지리적으로 떨어져 지내지만 초국적 가족 구성원은 본국에 남아 있는 자녀와 노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다양한 통신 수단을 통해 정서적으로 상호 지지하고 직접 방문하는 등 다양한 형식으로 초국적 돌봄을 실천하고 있다.

국제이주의 맥락에서 수행되는 초국적 가족의 돌봄에 관한 연구들

중 ‘전 지구적 돌봄 고리(global care chain)’의 개념을 통해 전지구화와 돌봄 및 이주를 통합적으로 규명한 연구들(Dreby 2006; Hochschild 2000, 2005; Parrenas 2001, 2005; Yeates, 2009, 2012)은 초국적 부모 중 특히 어머니가 본국에 남아 있는 자녀에 대한 초국적 돌봄 실천 양상의 분석에 관심이 있었다. 이들 연구는 남반구의 개발도상 국가의 어머니가 북반구의 서구 선진국의 가사 돌봄 노동자로 떠나면서, 이들 여성 이주자의 자녀는 부모나 친인척 등 대리 엄마에 맡겨지는 자녀가 늘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이들 연구는 국제이주자 부모, 특히 어머니의 본국의 자녀에 대한 ‘초국적 엄마노릇(transnational mothering)’의 수행을 통해 엄마와 자녀 간의 초국적 관계 지속에 주목하였다.

최근 국제이주와 가족 및 간호 분야 연구가 접목되는 지점에서 수행된 연구들(Baldassar 2007; Baldassar 2008; Baldock 2000; Treas 2008; Wilding 2006; Zechner 2008)은 국제 이주한 성인자녀와 남아 있는 노부모의 관계, 특히 초국적 돌봄에 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함을 역설한다. 사실 성인 자녀의 국제이주는 한동안 또는 경우에 따라서 기약 없이 자녀를 직접 만나지 못할 수 있는 자녀와 노부모의 분거 상황을 야기한다. 흔히 돌봄은 근거리에서 이루어진다는 전제 때문에 국경 너머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지내는 노부모와 성인 자녀 간의 초국적 돌봄은 돌봄 연구에서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한 경향이 있다. 그러나 멀리 떨어져 있는 노부모에 대한 성인 자녀의 돌봄은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s)을 이용한 다양한 방식의 정서적 지지와 송금 등의 물질적 지원 및 본국의 노부모 방문 등의 형식으로 초국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이 연구는 한국의 고려인 성인 자녀를 비롯해 초국적으로 이산된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확대 가족 네트워크 내에서 노부모 돌봄을 중심으로 돌봄이 순환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고려인 성인자녀의 본국에 남아 있는 노부모에 대한 초국적 돌봄 실천 양상을 규명하고자 한다.

발다사와 메르라(Baldassar and Merla 2014)는 초국적 가족의 구성원들 간의 돌봄이 ‘일반적 호혜성(generalized reciprocity)’¹⁾의 원칙에 따라 ‘다중 방향적(multi-directional)’으로 순환됨을 주장한다. 이러한 순환적 시각에서 초국적 가족의 네트워크 내에서 전개되는 노부모에 대한 돌봄을 바라보는 것은 거주 국가, 세대, 이주자와 비이주자, 연령 등의 특성을 지닌 다양한 행위자뿐만 아니라 이들이 수행하는 물질적이거나 정서적인 돌봄이 다중 방향으로 이동함을 파악할 수 있게 할 것이다.

한편 발다사(Baldassar 2008)는 이주 당사자들을 포함한 개인과 가족의 삶이라는 미시적 요인과 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구조를 연결시켜, 다시 말해 개인과 가족들의 초국적 실천을 지역과 국가란 맥락에 연결시켜 초국적으로 행해지는 부모에 대한 돌봄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미시적(micro) 수준의 가족과 친족, 중위적(meso) 수준의 민족공동체와 네트워크, 거시적(macro) 수준의 국가의 이민정책과 복지 및 의료체계에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 간의 상호연결성에 주목하며 고려인 이주 성인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초국적 돌봄을 분석할 것이다. 한국의 고려인 성인자녀가 수행하는 노부모에 대한 초국적 돌봄은 미시, 중위, 거시적 수준의 여러 요소들의 특정한 방식으로 조합된 ‘협상된 개입(negotiated commitments)’에 따라 실천될 것으로 기대한다.

2015년 현재 한국에는 약 2만 5천명 내외의 우즈베키스탄 출신 고려인이 체류하고 있다.²⁾ 1990년대 초 소련연방으로부터 독립 이후 우

1) ‘일반적 호혜성’은 재화나 서비스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되 어떠한 보답도 기대하지 않는 호혜성을 말한다. 일반적 호혜성은 모든 사회에서 가족을 유지시키는데, 부모는 본인이 원해서나 의무감 때문에 자녀에게 물질적·정서적인 것들을 제공하나 자녀가 보답할 시기와 방식에 대해 정확히 계산하지 않는다.

2) 2015년 8월 말 현재 한국에 체류하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자는 47,134명이며, 이 가운데 고려인은 방문취업비자(H-2) 소지자 14,150명과 영주권비자(F-4) 소지자 5,149명 그리고 영주권비자(F-5) 711명을 합친 20,010명이다. 그러나 동반 및 거주 비자 등을 소지한 고려인까지 포함한다면, 25,000명 내외의 우즈베키스탄 출신 고려인이 국내에 체류할 것으로 추정된다. 2010년 6,475명, 2012년 12,325명, 2014년 17,658명

즈베키스탄의 만성적 실업과 낮은 임금(정규직의 경우 약 미화 100~150불), 우즈벡 민족주의의 심화, 경직된 정치체제 등의 배출요인과 2007년의 방문취업비자(H-2)와 2008년의 재외동포비자(F-4)의 신설 등 한국정부의 재외동포에 대한 개방된 이민정책 등의 흡인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국으로 입국하는 고려인의 수가 급격히 증가해 왔다.

물리적으로 노부모와 멀리 떨어져 있는 한국의 고려인 성인자녀는 초국적 상황에서 노부모 돌보는 일에 적지 않은 시간과 재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에 체류하는 성인자녀가 노부모에게 행하는 초국적 돌봄의 구체적인 실천 과정과 그 내용을 규명하고, 이러한 돌봄 실천에 개입하는 다양한 분석 수준의 요인들이 타협되는 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흔히 국제이주에 관한 연구는 이주자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경험을 정착지 중심으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이주한 성인 자녀의 돌봄 제공 실천과 의미뿐만 아니라 남아 있는 노부모에게 자녀의 국제이주는 무엇인가를 송출지의 시각에서도 이해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이 연구는 자녀의 국제이주가 남아 있는 노부모에게 끼친 정서적 영향, 자녀의 초국적 삶, 자녀의 돌봄 실천, 자녀와의 재결합의 전망 등을 ‘노부모의 시각’에서도 이해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두 곳에서 ‘다중 지역적’(multi-sited) 현지조사가 수행되었다.

2) 초국적 가족 및 초국적 돌봄

초국적 가족의 돌봄에 대한 연구는 부모, 특히 어머니의 국제이주로 발생하는 ‘돌봄 유출’(care drain) 상황에서 자녀에 대한 ‘초국적 엄마

등으로 국내 우즈벡 고려인의 수는 급증하고 있다(2010년~2015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노릇(transnational mothering)’을 분석한 ‘전 지구적 돌봄 고리(global care chain)’(Hochschild 2000)의 개념이 널리 인용되면서 활기를 띠었다. 이 개념이 적용된 초국적 돌봄에 관한 연구들(Hochschild 2000, 2005; Parrenas 2001, 2005; Yeates 2009, 2012)은 북반구의 전일제로 직업을 지닌 여성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남반구의 여성이 북반구로 이동하고, 남반구의 여성의 본국의 자녀는 다른 대리 여성이 돌봄으로써 돌봄의 고리가 전 지구적으로 형성됨을 주장한다. 이 개념은 전 지구적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여성의 고리를 타고 돌봄이 일 방향으로 흐르는 이동을 전제하고 있는데, 고리의 한쪽 방향으로 돌봄이 흐르고 반대 방향으로 송금이 이루어지는 ‘돌봄의 상품화’를 강조한다. ‘전 지구적 돌봄 고리’의 개념은 두 가지 항목, 즉 이주자와 이주자 자신의 신체적 돌봄과 본국으로 보내지는 이주자의 수입인 현금이 서로 다른 방향의 고리를 따라 이동함을 전제한다. 사실 ‘전 지구적 돌봄 고리’의 분석 틀은 주로 ‘초국적 엄마노릇’에 초점을 맞춰 돌봄의 상품화를 규명함으로써 전 지구적인 돌봄의 정치경제학을 이해하는 데에 기여하였으며, 또한 계급·인종·종족성·젠더라는 사회적 분화를 기반으로 하는 전 지구적으로 구조화된 불평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개념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국제이주의 맥락에서 ‘전 지구적 돌봄 고리’의 개념으로 돌봄을 연구할 때 드러나는 한계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도 있다.³⁾ 특히 발다사와 메르라(Baldassar and Merla 2014)는 돌봄 교환이 ‘고리’라는

3) 이 개념을 비판하는 연구자들의 목소리는 다음과 같다. 여성 가사 노동자를 전 지구적 경제의 무기력한 희생자로만 묘사하고 있다(Ryan 2011). 초국적 돌봄 제공의 배치에 대해 부분적이고 정체적인 묘사만 하고 있다(Escriva and Skinner 2008). 엄마와 자녀의 이별은 이주와 가족 주기의 특정한 단계에 해당한다. 즉 자녀와 함께 이주하는 하는 것, 자녀를 두고 떠났다가 본국이나 이주 국가에서 재결합 하는 것 등은 가족 단위가 제도적이고 개인적인 기회, 본국과 이주 사회가 제공하는 자원과 구속 요인에 따라 선택된 특정한 전략의 산물이다. 이런 점에서 ‘전 지구적 돌봄 고리’의 시각은 이주자 가족 구성원의 행위성(agency)을 강조하지 않고 있다(Erel 2012; Huang, Yeoh and Toyota 2012).

원리를 넘어 확장되기 때문에 초국적 돌봄이 실제로는 다양하고 확대된 가족 구성원 간에 ‘순환하고(circulate)’ 있음을 강조한다. 돌봄이 순환됨을 강조하는 연구자들은 ‘돌봄 고리’가 이주자와 남아 있는 가족이라는 구분된 두 부류의 행위자들 사이, 즉 ‘쌍대적(dyadic)’ 관계만을 전제하지만, 사실 돌봄은 다양하고 확대된 가족 구성원 간에 ‘다중 방향적’으로 이동하며 순환한다고 주장한다. 돌봄이 순환된다는 연구들은 돌봄이 초국적 가족과 친족 네트워크 안에서 비대칭적인(asymmetrical) ‘일반적 호혜성’의 원칙을 따른다고 강조한다. 돌봄을 순환한다고 바라보는 것은 이주자와 이들의 가족과 친족들이 돌봄의 제공자이면서 수혜자이며, 돌봄이 일반적 호혜성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여러 세대의 구성원 간에 동시에 그리고 통시적(diachronic)으로 비대칭적(또는 불균등하게)으로 이동함을 말한다. 따라서 한 사람이 특정한 시기에 특정 가족원에게 주었던 돌봄은 또 다른 가족 구성원에 의해 비대칭적인(불균등한) 내용으로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다.

‘돌봄 고리’의 개념은 ‘돌봄 유출’이 일어남으로써 가족, 특히 부모와 자녀뿐만 아니라 송출 국가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옴을 전제하는 경향이 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초국적 가족을 바라보는 것은 돌봄은 지리적으로 근접한 상황에서만 실천된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국적 가족은 ‘초국적인 사회적 장(transnational social field)’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초국적 돌봄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돌봄이 근접한 상황에서 행하는 돌봄보다 항상 질적으로 떨어진다고 간주될 수도 없는 것이다. 이는 초국적 상황에서 물질적 지원과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가족 구성원 간의 ‘가상적 친밀함’의 공유, 돌봄 목적의 본국 방문 등의 초국적 돌봄은 초국적 가족 내의 공유된 소속감의 형성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돌봄 제공을 지리적 근접성이란 조건에 제한시키거나 초국적 가족 간의 돌봄 제공을 위기에 놓여 있는 불안정한 성격의 것으로 전제할 필요가 없다.

사실 ‘돌봄 고리’의 개념은 모든 초국적 가족에서 ‘돌봄 유출’⁴⁾이 일어나는 것을 전제한다. 여기서 ‘유출’은 본국에서 자신의 가족 구성원을 위해 수행되어야 할 돌봄 인력이 본국을 빠져나가 가사노동자나 노인요양인력의 자격으로 다른 국가, 특히 부유한 국가의 가족 구성원을 위한 돌봄 인력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모든 초국적 가족이 돌봄 유출을 필수로 동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국제 이주한 성인 자녀가 돌봄 영역이 아닌 부문에 노동하면서 본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에 이산되어 있는 가족과 친족 네트워크를 동원해 남겨진 노부모를 초국적으로 돌볼 수 있는 상황을 분석하는 데에 ‘돌봄 고리’의 개념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돌봄 고리’의 개념을 중산층 또는 숙련이주자뿐만 아니라 남겨진 자녀 외의 가족 구성원 예컨대 노부모에 대한 초국적 돌봄 관계의 분석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Dreby 2006; Sorensen and Guarnizo 2007).

‘초국적 엄마노릇’에 관한 연구에 비해 노부모에 대한 초국적 돌봄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수행되기 시작했다. 국제이주와 가족연구 및 노년학 연구가 접목되는 지점에서 수행된 일부 연구들(Baldassar, Baldock, and Wilding 2007; Vullnetari and King 2008)은 기존 노년학과 가족 연구들이 지리적 근접성(proximity)을 세대 간 돌봄에 전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을 소규모 사적인 지리적 영역으로 또는 가부장적 국민 국가의 기본적인 재생산 단위로 개념화 하는 경향을 비판하고 있다. 국제이주 성인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초국적 돌봄에 관한 연구들(Baldassar, Baldock, and Wilding 2007; Merla 2012; Treas 2008; Vullnetari and King 2008; Zechner 2008)은 국제 이주를 본국에서 이

4) 국제이주의 맥락에서 자주 등장하는 ‘인재 유출(brain drain)’ 개념도 일반적으로 한 국가에서 고급 인력들이 다른 국가, 특히 산업 선진국으로 이주하여 다른 국가에서 활용됨으로써 남아 있는 국가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주는 현상을 말한다. 특히 인재유출은 개발도상국이 직면했던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였으며 이들 국가발전에 장애로 인식되었다.

주 국가로의 일회적인 공간적 이동이 아닌 두 곳 이상의 장소들에 거주하는 가족과 친족 간에 평생을 거쳐 진행되는 복합적인 상호작용으로 이해하는데, 본국의 노부모에 대한 초국적 돌봄 실천이 핵심적인 상호작용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 연구는 편지, 전화, 이메일, 텍스트 메시지 등을 이용한 정서적 지지와 재정적인 지원 및 본국 방문 등을 통해 정규적이고 구조적인 노부모에 대한 초국적 돌봄이 수행되고 있음을 주장한다. 이들 연구는 성인자녀의 국제이주로 본국의 노부모와 자녀가 지리적으로 떨어져 분거하고 있지만, 이러한 현실을 초국적 가족의 분절화 또는 결속약화라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낙인찍기보다, 초국적 상황에서도 멀리 있는 부모에 대해 성인 자녀가 수행하는 다양한 형식의 초국적 돌봄에 주목할 것을 역설한다.

국내에서 수행된 이주와 초국적 가족에 대한 연구는 주로 ‘기러기 가족’, 조선족 가사노동자,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우선 조기 유학으로 형성된 소위 ‘기러기 가족’에 대한 연구들(강유진 2009; 김선미 2009; 박경환·백일순 2012)은 자녀의 조기유학이 계기가 되어 분절가구가 발생하고 초국적 가족이 부상한다는 점과 자녀유학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에서 국제 장기 분거가족의 전업주부로 사는 어머니의 삶의 경험과 정체성 등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국내 이주 여성 돌봄 노동자에 관한 일부 연구들(리화 2012; 박홍주 2009; 쓰지모토 도시코 2012)은 중국 조선족 여성과 필리핀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이주 가사노동자로서의 경험, 초국적 가족문제, 이주의 여성화 등을 주요 연구 주제로 삼고 있다.

초국적 가족유대에 관한 국내 연구는 다문화가정과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소수의 연구가 있는데, 결혼이주여성의 초국적 가족 유대에 대한 연구들(김혜선 2014; 단효홍·김경학 2015; 허오영숙 2013)은 초국적 가족 구성원인 결혼이주여성이 국가의 경계를 넘어 가족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본국의 가족 구성원에

대한 초국적 돌봄을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본국 가족원과의 초국적 가족관계의 유지와 돌봄 실천을 규명한 연구(김경학 2014b)는 이주노동자가 규칙적 송금,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정서적 지지, 본국 방문 등의 초국적 돌봄 실천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초국적 가족에 대한 연구가 이주노동자와 엘리트 중심으로 수행됨으로써 공장 관리직이나 기술직 매니저처럼 중간 계급에 대한 연구가 소홀하게 된 점을 강조하며, 베트남 호치민시의 한국계 다국적 공장에서 일하는 한인매니저의 초국적 삶과 가족 유대를 규명한 연구(채수홍 2014)도 주목할 만하다.

국내 거주 고려인에 대한 소수의 연구들에는 설문지를 이용해 이주 배경과 정착 유형 등을 포함한 몇 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국내 고려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고려인의 윤곽을 보여주고 있는 연구(김영술·홍인화 2013; 김재기 2014; 오정은·강희영·성동기 2014)와 질적 자료를 통해 고려인의 이주와 정착과정 및 귀환을 다룬 연구(김경학 2014a; 이은정 2015)가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에서 한국에 정착한 고려인 초국적 가족과 본국에 남아 있는 가족원, 예컨대 자녀와 노부모 등과의 초국적 관계, 특히 초국적 돌봄을 규명한 기존 연구는 없다. 고려인의 한국 유입의 흐름이 심화될수록 본국에 남아 있는 자녀 외의 가족원, 특히 노부모의 수도 점증적으로 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노년 세대를 돌볼 사회보장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우즈베키스탄 거주 노부모에 대한 국제이주 성인자녀의 초국적 돌봄을 규명하는 것은 시의 적절한 시도라 사료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우즈베키스탄 독립 이후 열악한 경제 환경과 경직된 정치체제로 인

해 약 250만 명 이상의 우즈베키스탄 인구가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이주하고 있다. 러시아의 연방이민국에 따르면 2015년 1월 현재 약 2백 2십만 명의 우즈벡 국적자가 러시아에 체류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인의 주요 이주 대상국은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유럽연합 국가, 한국인데, 우즈벡 전체 이주민의 약 85%는 러시아로 국제이주하고 있다(Parpiev 2015). 2014년 말 현재 우즈베키스탄 내 고려인의 수는 182,957명이며, 전체 고려인의 약 75%에 해당하는 136,520명이 타슈켄트 시와 인근의 타슈켄트 주에 거주하고 있다(외교부 재외동포현황 2015). 고려인의 국제이주 대상국별 이주 규모를 알 수 없지만 한국으로의 이주 규모가 늘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인 출신 국제이주자의 절대 다수가 러시아를 향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고려인도 우즈베키스탄 독립 후 러시아 모스크바 등 대도시뿐만 아니라 연해주와 불가 지역으로의 대규모 이주가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로의 이주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오정은 외 연구자(2014: 49)는 고려인이 이주 방향을 정할 때 중시하는 기준은 러시아어 사용의 빈도, 새로운 국적의 취득가능성, 경제적 소득의 증대, 사회적 지위 개선 등이기 때문에 여전히 러시아연방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라고 주장한다. 젊은 세대 고려인의 한국으로의 이주가 이주의 대세로 보이지만,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을 인정받기 위한 소위 전문직종이나 사무직종을 원하는 고려인은 러시아어가 통용되고 우즈베키스탄의 학력과 경력이 인정되면서 광범위한 친인척이 거주하고 있는 러시아로의 이주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⁵⁾

2015년 8월 말 현재 한국에 체류하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자는 47,134명이며, 이 가운데 약 53%에 해당하는 고려인은 25,000여 명으

5) 필자가 2015년 1월 초에 타슈켄트에서 만났던 박아나톨리아 남동생 박브라디미르는 타슈켄트 시 국가병원 의사였는데 2015년 8월에 러시아로 국제 이주하여 의사로 일하고 있다. 또한 김에르네스트(56)의 둘째 아들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현재 모스크바에서 의과대학원을 다니고 있으며 러시아에서 의사생활을 하고자 한다.

로 추정되며, 고용허가비자(E-9)로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자는 전체의 약 35%에 해당하는 16,560명이다. 외국인 등록과 거소신고 등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신고지와 실제 체류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광주광역시에 체류하는 고려인의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지만, 광주 고려인주민지원센터는 약 2,000~2,500명 이상의 고려인의 대부분이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체류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⁶⁾

광주 ‘고려인마을’은 2000년대 중반부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산정동, 우산동 일대에 고려인이 몰려 살게 되면서 고려인 집거지로 형성되었다. 고려인이 광산구에 밀집해 사는 것은 이 지역에 하남공단, 평동공단, 소촌공단 등 광주광역시의 주요 공단이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고려인을 지원하는 ‘고려인주민지원센터’와 ‘새날어린이집’, ‘고려인마을지역아동센터’, ‘고려인마을협동조합’은 월곡동에, 그리고 학생수의 과반수 이상이 고려인인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정부위탁학교인 ‘새날학교’와 ‘외국인노동자건강센터’ 및 ‘고려인마을’과 의료협력을 맺은 병원들도 광산구에 위치하고 있다. 2015년 9월 초에 약 2억 4천만 원의 민간인과 단체의 후원으로 ‘고려인가족지원센터’가 새롭게 개소하는 등 광주광역시 지역사회의 고려인사회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다.

연구자는 광주광역시의 고려인 성인자녀 이주자가 우즈베키스탄에 남아 있는 노부모에 대한 초국적 돌봄 양상을 규명하기 위해 소위 ‘다중 지역 민족지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연구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려인가족지원센터가 주관하는 2014년 ‘추석맞이 고려인한마당’, ‘고려인의 날’ 등을 포함한 각종 행사와 행사에 참여했던 고려인들을 참여 관찰 하였고, 2014년 6월부터 2015년 9월에 걸쳐 광산구에 거주하는 고려인 10개 가족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들과의 평균 2~3

6)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고려인의 약 95% 이상은 우즈베키스탄 출신인데, 거소지신고가 의무로 되어 있는 재외동포비자(F-4) 소지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가운데 292명이 광주광역시에 체류하며, 이들의 약 95%에 해당하는 276명이 광산구에 체류하고 있다.

회에 걸친 심층인터뷰를 통해 이들 고려인 가족의 한국으로의 이주과정과 정착 및 본국의 노부모에 대한 초국적 돌봄 실천에 대한 자료가 수집되었다. 10개 가정 가운데 4개의 가정은 부부가, 나머지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연구자와의 인터뷰에 직접 참여하였으며, 이들 모든 인터뷰 대상 가구는 자신 가정 외에 광주와 타지에 형제자매와 친인척을 두고 있었다.

연구 대상 10개 가구의 부부가 소지한 비자 유형은 방문취업비자(H-2)를 소지한 2개 가구를 제외한 8개 가구는 재외동포비자(F-4)를 소지하고 있다. 이들 연구대상의 한국 체류 기간은 최소 2년부터 최장 5년 사이로, 이들의 평균 체류 기간은 약 3년 9개월이었다. 이들 가구의 부부 모두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과 산정동에 거주하면서 대부분 광산구의 하남공단, 소촌공단, 평동공단 내 사업장에서 근무하지만 소수는 일용직에 종사한다. 이들 가구의 소득은 일정치 않지만 부부합산 월 평균 약 300~350만 원 사이였다. 8개 가구는 단독주택에 그리고 빌라와 아파트에 월세로 사는 1개 가구씩이 있다.

광주에 체류하는 9개 가정⁷⁾의 노부모에 대한 현지조사를 위한 우즈베키스탄에서의 현지조사는 2014년 12월과 2015년 1월에 걸친 3주 동안 타슈켄트 시와 타슈켄트 시 인근 농촌에서 수행되었다. 이들 노부모에 대한 인터뷰는 연구 대상의 가정집에서 대략 2~3시간씩 수행되었다. 이들에 대한 인터뷰에는 노부모뿐만 아니라 현지에 남아 있는 노부모의 형제자매 또는 광주 성인자녀의 형제자매의 일부가 참여하였다. 우즈베키스탄에서의 노부모에 대한 인터뷰는 가정집에서 수행되었기 때문에 인터뷰 외에 가옥구조, 가옥 내 부착된 가족사진, 성인 이주자녀의 결혼과 부모의 환갑잔치 DVD 자료, 컴퓨터 유무 여부, 성인자녀가 이주

7) 광주지역의 연구 대상 10개 가정 가운데 1개 가정은 연구자의 우즈베키스탄 현지조사 기간에 부모님이 러시아의 친인척 집을 방문할 계획이 잡혀 우즈베키스탄 부모님 인터뷰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9개 가정의 부모님이 우즈베키스탄 현지조사의 연구대상이 되었다.

전에 머물렀던 공간 등 다양한 영역에 걸친 정보가 수집될 수 있었다. 이러한 자료들은 남아 있는 노부모가 이주한 성인자녀에 대해 그리움을 표현하는 방식과 내용을 짐작할 수 있게 하였다.

전체 노부모 가운데 6개 가구의 노부모는 타슈켄트 시내의 아파트에 그리고 3개 가구는 타슈켄트 인근의 농촌에 거주하였다. 전체 가구의 아버지의 연령은 64세에서 71세에 걸쳐 있고 평균 연령은 64세였다. 어머니의 연령은 54세에서 78세에 걸쳐 있고 평균 연령은 63.5세였다. 9개 가구의 노부모 가운데 부부 모두 연금 수령 연령(남자 만 60세, 여자 만 55세)에 미달한 1개 가구를 제외한 8개 가구의 부부는 현재 정부의 연금 수령자였으며, 부부합산 연금 수령액은 미화 약 150~420 불인데, 이들 전체 가구의 부부합산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은 미화 약 285 불이다.

우즈베키스탄에서의 현지조사는 광주에 체류 중인 성인자녀의 노부모에 해당하는 9개 가구에 대한 조사 외에도, 고려인 강제이주세대 노인을 대상으로 입소를 허용하는 ‘아리랑 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도 수행되었다. 타슈켄트 주 ‘유코리치르칙’구역(시온고 지역)에 위치한 ‘아리랑 요양원’에는 2014년 12월 현재 39명의 고려인 노인이 입소해 있는데, 한국에 이주한 자녀가 있는 입소 노인 가운데 3명의 입소 노인 및 부원장과의 인터뷰도 진행되었다. 부원장으로부터 요양원 입소자의 일반적 배경과 우즈베키스탄 내 ‘아리랑 요양원’의 위상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으며, 2명의 남성 입소 노인과 1명의 여성 입소 노인을 대상으로 입소 배경 및 요양원 입소에 대한 본인과 자녀의 생각을 약 2시간씩의 인터뷰를 통해 청취할 수 있었다.

우즈베키스탄 현지조사 기간 동안 경기도 안산에 체류하는 성인자녀를 둔 3개 가구의 노부모와의 인터뷰도 수행되었다. 연구자는 3개 가구의 노부모와 인터뷰 후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안산에 체류하고 있는 이들 자녀에 대한 인터뷰는 2015년 1~2월에 실시했다. 자녀들과의 인

터뷰는 본국의 노부모가 생각하는 자녀의 국제이주, 초국적 돌봄, 가족 재결합에 대한 계획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2015년 4~8월 사이에 우즈베키스탄 노부모와의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하여 광주의 성인 자녀에 대한 인터뷰가 재차 수행되었다. 특이한 사항은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인터뷰 했던 3개 가구의 어머니가 광주의 성인자녀의 집을 방문하였고 연구자는 광주에서 이들에 대한 인터뷰를 다시 한 번 수행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한 명은 며느리의 출산을 돕기 위해 다른 한 명은 큰 사위 사망 후 큰 딸을 위로하기 위해, 남은 한 명은 휴가를 목적으로 광주를 방문하였다. 이들이 광주의 성인 자녀를 방문한 목적이 출산과 사망 등의 가족의 위기에 이민 생활하는 자녀를 정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점이라는 데에 주목하였다. 이들과 다시 실시된 인터뷰 내용은 초국적 가족 내 돌봄이 ‘세대를 횡단하는’ 순환적 성격이란 점을 확인해 주고 있다. 이 연구는 광주의 고려인, 우즈베키스탄 노부모, 안산의 고려인, 광주의 노부모처럼 초국적으로 이동하는 연구 대상을 따라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이 연구에서 언급되는 모든 고려인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가명으로 처리되었음을 밝힌다.

3. 고려인 가족의 돌봄 문화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고려인은 한반도에서 러시아 연해주와 중앙아시아로의 이주, 약 60년의 소비에트 시절, 1990년대 이래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시대 등을 지내오면서 사회주의 이념과 러시아와 우즈베크 민족 등 다양한 민족의 문화적 영향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 세력의 영향과 타 민족 간의 상호교류에 의한 일부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친족의 영역에서는 한반도의 문화적 전통이 유지되고 있다. 고려인의 강한 가족 유대의 유지 전통에 대해 장준희(2011: 225-226)는

고려인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 후 적성민족으로 분류되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다시피 한 상황에서 가장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가족이었기 때문에 조상과 가족 전통에 대한 관념이 뿌리 깊게 자리 잡았다고 주장한다.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사회에는 친족간 유대관계를 중시하고 부계 성씨를 존속하려는 의식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이는 남아 선호 경향과 부합하고 있다. 결혼 후 분가의 경향이 뚜렷하지만 노부모에 대한 봉양 의식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노부모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거나 홀로 남은 노부모를 모시는 등 노부모 돌봄의 전통이 대체로 강하게 유지되었다(김용환 1999: 88-95).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여성에 대한 기대는 사회주의 사회의 영향을 약화시킬 정도로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여성이 식사준비를 해야 한다거나 살림을 해야 하는 등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직장 등 사회생활에 대한 기대보다 높은 편이다. 반면 남성에게는 집안을 이끌고 직장 일 등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기대가 월등히 높다. 또한 고려인 부모는 자녀에 대해 부모 봉양보다 사회적 독립을 기대하지만 이러한 희망에도 불구하고 아들에 대한 기대, 노후를 아들에게 기대하려는 의식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다. 이러한 점은 아들, 특히 맏아들이 부모를 모셔야 하지만 이러한 기대를 딸에게는 크게 하고 있지 않아 부모 봉양을 아들에게 전담하는 전통적인 고려인의 가족 의식이 남아 있다(이정옥 1996: 141-145).

강제이주세대와 이주 2~3세대들은 자신의 부모가 조부모와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현재도 여전히 부모에 대한 효도를 매우 당연하게 여긴다. 한국에 체류하는 고려인 성인자녀의 대부분은 중앙아시아 이주 3-4세대에 속한다. 특히 이들 가운데 자신의 부모가 조부모를 돌보았던 경험이 있는 성인 자녀는 노부모 봉양에 관한 문화적 개념을 매우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있다. 타슈켄트 시 인근 농촌 ‘유코리치르칙’구역(시온고 지역) 출신인 김그레고

리(남, 33)의 아버지(63)는 3남 2녀 가운데 둘째 아들이었지만, 큰형 가족이 우즈베키스탄 독립 후 러시아로 이주했던 1990년대 중반부터 어머니를 모셨다. 김그레고리는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와 함께 생활하면서 할머니가 사망할 때까지 자신의 부모가 할머니를 돌보는 모습을 지켜봤기 때문에 외아들이자 자신이 부모를 모신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⁸⁾

고려인 성인자녀는 부모가 자신들에게 베풀었던 사랑과 돌봄에 대해 자신들이 부모에게 되갚는 것을 지극히 자연스런 돌봄의 순환으로 생각한다. 경기도 안산시 ‘뗏골’에 거주하는 김안나(여, 46)의 부모 모두가 교사출신인데 현재 타슈켄트 시 인근 농촌 ‘니르니치르칙’에 살고 있다. 소련시절에 4녀 1남의 자녀 모두를 대학교육을 시키기에는 교사 급여가 너무 적었다. 어머니는 시장에 나가 옥수수 등을 팔며 자녀를 교육시켰는데 이러한 고생은 우즈베키스탄 독립 후에도 일정 기간 이어졌다. 현재 김안나의 다른 두 자매는 타슈켄트에 그리고 남동생은 러시아에 체류하는데, 김안나에 따르면 이제 자식들이 부모를 돌볼 차례기 때문에 비록 해외에 있지만 송금과 국제전화 등을 통해 부모에게 뭔가를 돌려드려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이 연구 대상의 고려인 부모들 역시 자신들에 대한 돌봄 제공을 자녀, 특히 아들이 해주길 기대하고 있으며 이들의 아들들 또한 부모 돌봄을 당연히 생각하고 있다. 딸만 있는 경우 자신의 노후를 마지막까지 돌본 딸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고려인 가족에서 딸 또한 부모 돌봄에 적극적인 편이다. 남자 형제가 있는 경우라도 딸들 역시 자신의 부모에게 송금과 선물 배송 및 국제전화 등을 통한

8) 광주에 체류하는 김그레고리는 언어 등 여러 이유로 한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는 한국에서 모은 돈으로 타슈켄트에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하여 후일 아들에게 주고, 자신은 ‘시온고’ 마을에 사는 부모와 함께 살면서 부모를 모실 계획이라고 말한다. 그의 큰누나는 한국 남자와 결혼했으니 한국에서 살 것이고, 막내여동생은 동생이자 여자니 그가 부모를 돌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정서적 지지를 일상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여자형제만 있는 손엘레나(29), 황류드밀라(49), 최로자(31)는 부모를 한국으로 단기 초청해 돌보거나 정기적인 송금과 본국 방문을 통해 그들의 부모를 초국적으로 돌보고 있다.

고려인의 가족과 친족 유대가 여전히 강하게 드러나 보이는 맥락은 고려인 사회가 중시하는 돌잔치, 결혼식, 환갑잔치, 장례식, 제사 등의 통과의례에 있다. 통과의례에서는 경제적 여건이 허락하는 한 되도록 많은 수의 친족원과 이웃을 초대한다. 흔히 손자의 돌잔치는 조부모가 결혼식은 부모가 그리고 환갑잔치는 자녀가 준비해준다고 현지 고려인들은 말한다. 이는 고려인의 돌봄의 ‘세대 간의 호혜성’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다. 성인 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봉양의식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의례적 맥락은 부모의 환갑잔치이다. 자녀가 부모의 환갑잔치를 성대하게 해 드리는 것은 부모 봉양을 제대로 실천하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가족 내 죽음이 발생하거나 부모님이 병환 중에 있는 경우 또는 경비가 채 준비되지 않은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 자녀는 부모의 환갑잔치를 제때에 맞춰 해 드리고자 한다.

광주의 백세르게이(남, 35세)와 황류드밀라(여, 49)는 어머니 환갑잔치에 들어가는 경비 마련이 이들의 국제이주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였다. 백세르게이 어머니의 환갑잔치는 환갑 되던 해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셔서 미뤄졌는데, 백세르게이는 보류된 어머니 환갑을 보다 성대히 하기 위한 목돈 마련도 자신의 한국으로의 이주 이유의 하나라고 말한다. 또한 두 자매만 있는 황류드밀라는 어머니의 환갑 해에 경제적으로 어려워 잔치를 미루고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해 약 4년 동안 중국에서 수입한 의류를 시장에서 팔면서 모은 돈으로 어머니 70세 되던 해에 환갑잔치를 성대히 하였다.⁹⁾

9) 2015년 5월 광주에서 만난 황류드밀라 씨의 어머니(78)는 둘째 황류드밀라와 큰딸만 있는데, “아들이 없어도 딸이 엄마 환갑도 챙겨주었다.”고 주변 고려인들에게 자랑하

부모에 대한 봉양과 존경의 의미는 부모 사망 이후에도 이어지는데, 이는 고려인의 제사 관습에 잘 드러난다.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은 사망 후 매장 다음날에 지내는 ‘3일 제사’, 사망한 지 1년이 되는 ‘돌 제사’ (또는 2년 제사), 사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에 ‘삼년 제사’를 지낸다. 이들 제사는 모두 기일에 행해지면 묘를 방문하여 제사를 지낸다. ‘삼년 제사’ 종료 후 제사 지낼 때마다 착용했던 남녀 상복을 모두 불태우는데 이를 ‘탈상’이라고 부른다(김엘에나 2014). 노부모의 사망 이후 탈상까지 환갑잔치 등 음주가무가 동반된 대부분의 행사가 보류되는데 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행위로 인식되고 있다.

큰아들 박아나톨리아(남, 39)의 한국으로의 초청을 미루고 있는 아나톨리아 어머니(58세)는 2014년에 사망한 친정어머니에 대한 공경의 예를 잘 드러내고 있다. 박아나톨리아는 부모를 한국으로 초청하고자 했지만, 모친 사망 후 ‘3년 제사’가 끝나는 시점까지 외국 출입을 하지 않겠다는 어머니의 주장으로 한국방문이 보류되었다. 티슈켄트에서 연구자를 만난 어머니는 “모친이 돌아가신 것을 계속 슬퍼해야 하는데, 한국에 가 있으면 모친 돌아가신 것을 잊을까 염려되고 이럴 경우 죄책감이 든다.”는 이유로 큰아들의 한국 방문초청을 거절하였다고 말한다.

고려인 사회에서 노년기의 부모에 대한 돌봄 제공은 가족 구성원, 특히 자녀의 몫으로 간주된다. 이 연구의 모든 노부모는 함께 거주하거나 가까이 살고 있는 자녀에 의한 돌봄을 기대하고 있으며,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원에서 노년을 보낸다는 것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 말한다. 성인 자녀 역시 자신들이 노부모를 돌보지 않고 부모를 요양원에 위탁하는 것을 큰 불효라고 생각한다. 우즈베키스탄의 강제이주세대 고려인 전문 요양시설인 ‘아리랑 요양원’에서 인터뷰에 응한 차콘스탄틴(남, 74), 조클라라(여, 80), 최에르네스트(남, 90) 세 명의 입소

고 다녔다고 연구자에게 말했다. 그녀는 딸만 있는 경우 환갑잔치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한다.

노인들은 연구자와의 인터뷰가 시작되자마자 한결같이 “자식들이 요양원 입소에 반대했지만 본인이 우겨서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의 이런 태도는 요양원에 부모를 맡긴 자식들의 체면을 생각해 자신들이 입소를 ‘우겨서’ 하게 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며, 고려인 사회에서 부모를 직접 모시지 않고 요양원에 입소시키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사실 세 명의 입소자 자녀들은 러시아, 한국, 카자흐스탄 등으로 국제이주 하였으며, 이들 입소자 모두 배우자 사망 후 자신을 돌볼 자녀나 손자녀가 우즈베키스탄에 없는 노인이다. 예컨대 두 딸만 있는 최에르네스트(남, 90)의 경우 회계사였던 큰딸은 4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가고, 치과의사였던 둘째 딸은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3년 전에 한국으로 이주했다. 미국으로 가족과 함께 가지 않았던 큰 외손녀가 1년 동안 외할아버지를 돌보았지만 최근 미국으로 떠난 후, 둘째 딸이 한국에서 함께 살자고 했지만 연로한 최에르네스트가 딸에게 짐이 될까 싶어 요양원 입소를 강하게 요구했다. 한국의 딸은 1년에 두 번 그리고 미국의 딸은 1년에 한 번씩 요양원의 아버지를 방문하고, 두 딸 모두 일요일마다 국제전화로 아버지의 안부를 묻는다.

요양원 입소에 대한 생각을 묻는 연구자에게 노부모들은 “자식이 있는데 왜 내가 요양원에 들어가는가?”라고 말하며 요양원 입소에 대한 강한 반감을 보였다. 요양원 부원장(여)에 따르면 대부분 고려인 노인들은 자식이 없는 경우 경제적으로 약간의 여유만 있으면 양녀라도 얻어서 요양원에 입소하지 않으려 한다고 한다. 요양원 입소를 둘러싼 노부모와 자녀의 견해에서 명확히 드러나듯 고려인은 노년기의 부모를 돌보는 것을 자식의 의무로 생각하며, 부모 역시 되도록 자녀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 노력한다는 등 노년기의 독립성을 강조하지만, 도움이 필요할 때면 자녀가 자신들을 보살펴 주길 기대하고 있다.

4. 노부모에 대한 초국적 돌봄 실천

우즈베키스탄에 부모를 남겨 두고 한국으로 이주한 고려인 성인 자녀들은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노부모에 대한 돌봄을 다양한 형식으로 실천하고 있다. 초국적 가족들 간의 정서적 연대의 강도와 신뢰의 수준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음으로 인해 야기되는 돌봄 관련한 다양한 장애를 극복하게 한다(Gouldbourne and Chamberlayne 2001: 42; Mason 1999: 9). 그러나 물리적으로 함께 있지 못하는 성인자녀가 본국에 남겨진 부모가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할 때 이를 적절히 대응하 기란 쉬운 일만은 아니다.

발다사와 발독 및 윌딩(Baldassar, Baldock and Wilding 2007)은 가능성(능력), 돌봄에 관해 문화적으로 규정된 의무, 가족 네트워크 내에서 돌봄 제공을 위해 타협된 가족의 개입(commitment)이란 논리체계 에 의해 초국적 돌봄 제공이 중재된다고 주장한다. 돌봄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욕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 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개입하는 변수에는 가족 관계의 건강성, 이용 가능한 재정적 자원과 시간, 자녀의 부모 돌봄에 대한 역할 기대라는 문화적 개념 등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은 한국을 비롯해 여러 국가에 이산되어 있는 자녀들이 본국에 남아 있는 부모에 대한 초국적 돌봄 실천에 개입하는 깊이와 방식을 둔 타협에 관여한다. 부모에 대한 초국적 돌봄의 가장 일반적인 형식에는 규칙적인 전화, 팩스, 서신, 이메일과 이동통신을 이용한 텍스트 메시지 전송 등을 통한 정서적 지지, 현금과 선물 교환의 물질적 지원, 자녀와 부모의 본국과 정착지에 대한 상호 방문 등이 있다.

1) 송금을 통한 물질적 지원

초국적 이주자의 송금은 정착지 수입의 일부를 본국의 가족에게 보내는 단순한 ‘돈의 흐름(money flow)’만을 뜻하지 않는다. 송금이 본국에 남아 있는 가족 구성원, 특히 부모와 자녀에 대한 초국적 돌봄 행위의 중요한 실천이기 때문이다. 국제이주 성인자녀의 송금은 노부모의 의식주와 의료복지의 수준 향상에도 기여하기 때문에 노부모에 대한 중요한 초국적 돌봄 행위의 하나로 인식된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처럼 낮은 고용율과 임금 수준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젊은 세대 고려인이 러시아, 카자흐스탄, 한국 등으로 국제이주를 함으로써 현지에 남아 있는 노부모는 경제적 위기 상황에 직접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의 자녀들은 노부모에게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인 형식의 물질적 지원을 해야 한다.

본 연구 대상의 부모는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 시의 아파트와 인근 농촌의 단독주택에 거주한다. 우즈베키스탄의 12개 가정(광주 자녀 9/안산자녀 3)의 노부모 합산 연금의 월 평균 수령액은 미화 약 285불인데, 이 액수로 기본 식생활과 주택 관리비용은 겨우 해결되나 의료와 의례비용 등을 감당하기는 어렵다. 타슈켄트 시내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한세르게이(남, 37)의 어머니(64세)의 월 연금 수령액은 미화 약 250불이다. 이 액수로 어머니는 아파트 관리비와 일상 생활비를 겨우 해결하지만 혈압 약값 등의 의료비용을 감당하기는 어렵다. 어머니의 의료비용은 한국에 있는 아들 한세르게이가 보내는 매월 약 150불과 한국과 카자흐스탄에 살고 있는 두 딸이 부정기적으로 보내는 돈으로 해결되고 있다.

혈압, 당뇨, 근골격 신경통 등 만성적 질환에 시달리는 노부모는 정기적인 약 구입을 위해 연금의 상당부분을 지출하기 때문에 자녀의 송금이 없으면 사실상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다. 광주에 체류하는 송

크세니아(여, 41)의 타슈켄트의 어머니(68세)는 혈압과 심장 약값으로 부부합산 연금의 1/4를 지출한다. 의료비가 비싼 개인병원이 아닌 국가 병원을 가더라도 입원비는 무료지만 검사비용, 의사 처방비용, 약값 모두를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¹⁰⁾ 한국에 있는 송크세니아는 1남 2녀 중 두 번째 딸이며 큰언니 가족은 약 10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 갔고, 막내 남동생은 타슈켄트에서 컴퓨터 부품을 한다. 미국에 있는 큰 언니는 형부의 건강악화로 경제적 여유가 없어 부모님께 송금을 못한다. 광주에서 정기적으로 송금을 하는 송크세니아와 컴퓨터 가게를 하는 남동생이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을 맡고 있다. 아들이 부모를 돌보아 한다고 생각하는 남동생은 부모에게 용돈 드리는 일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고, 컴퓨터 부품 구입 등을 위해 한국을 가끔 방문하는 남동생의 한국 체재 등 모든 도움을 누나인 송크세니아가 적극 지원하고 있다. 송크세니아는 타슈켄트의 부모님 가까이 살면서 부모님을 직접 돌보고 있는 남동생을 무척 고마워한다.

두 명의 형제 가운데 막내인 광주의 백세르게이(남, 35)는 타슈켄트의 형(39)에게 아버지의 고혈압과 어머니의 저혈압 치료를 국가병원이 아닌 개인병원에서 받게 하라는 부탁과 함께 송금을 한다. 백세르게이는 부모의 혈압 치료를 위한 정기적인 진단과 약 구입에 필요한 돈을 송금하고, 현지의 형은 부모를 근거리에서 직접 돌보는 것으로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 고려인 성인 부부가 경제활동을 할 경우 부부 합산 월 3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한국의 높은 주거비, 자녀 육아와 교육비, 일상 생활비를 지출하면서 부모에게 규칙적인 송금을 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규칙적인 송금을 하는 이 연구

10) 타슈켄트의 의사인 박브라디미르(남, 39)에 따르면 국가병원과 개인병원의 의료비에 큰 차이가 있는데, 예컨대 국가병원의 X-Ray 촬영 비용은 미화 약 1.5달러지만, 시설 좋은 개인병원에서는 미화 15달러 내외를 요구한다.

의 고려인 성인자녀는 모든 형제자매가 해외에 있거나 자신의 자녀를 부모에게 맡겨둔 경우에 해당한다. 12개 가구(안산 거주 3가구 포함) 고려인 성인자녀 중 5개 가구가 매월 20~40만 원 범위 내에서 부모에게 정기적 송금을 한다. 2개 가구는 아이를 부모에게 맡겼고, 다른 3가구는 형제자매 모두가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 박아나톨리아(남, 39)와 김엘레나(여, 34) 부부는 공장 근무로 부부합산 약 월 400만 원을 번다. 부부는 타슈켄트 시의 시부모께 맡긴 딸(6)의 양육비와 시부모 용돈을 보내고,¹¹⁾ 김엘레나는 이전 혼인에서 태어난 딸(14)을 양육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우르겐치(Urganch)의 친정어머니께도 매월 생활비를 보낸다. 한편 남편 아나톨리아도 자신의 이전 혼인에서 낳은 두 아이의 양육비 몫으로 매월 생활비를 전처에게 보낸다.

자매와 형제간의 송금액과 송금의무를 느끼는 정도는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를 형제자매가 수용하는 경우는 특별한 갈등의 소지가 줄어들다. 이 연구의 대부분의 사례에서 아들이 딸보다 부모에 대한 송금의무를 크게 느끼고 있으며, 자매만 있는 경우도 큰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특히 결혼 여부에 따라 미혼인 경우 남녀 모두 부모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송금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형제자매들은 한국남성과 혼인한 여자형제를 한국의 시부모를 돌봐야 하는 존재로 여기고, 우즈베키스탄에 남아 있는 부모에 대한 돌봄을 자신들의 몫으로 생각하고 있다.

한편 부모에게 부정기적으로 송금하는 7개 가구는 부모 생일, 설날, 추석, 신년, 어머니날 등 년 중 기념일 또는 부모의 병환 등 긴급한 현금수혈이 필요한 때만 송금한다. 부정기적 송금 사례는 유학 중인 자녀의 학비에 대부분의 재원이 투입되거나, 타슈켄트에서 경제활동 하는 다른

11) 송금을 받는 박아나톨리아 부모님은 돌보고 있는 손녀의 유치원과 학원비용 등으로 실비를 지출하고 남은 돈을 저축해 자녀가 귀국한 후 돌려줄 생각을 하고 있다. 어머니는 2013년에 아버지 병원비로 아들이 보낸 미화 500불과 매월 정기적으로 보내는 돈의 일부를 돌려주기 위해 저축하고 있었다.

형제자매가 부모의 생활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였다. 황타티아나(여, 84)의 큰아들 김에르네스트(56)와 둘째 아들(52)은 안산과 평택에 각기 단독으로 체류하고 있다. 아들들이 한국에 가면서 ‘아리랑 요양원’ 의사인 딸(56)이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고 있다. 큰아들 김에르네스트는 러시아에서 의과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아들의 학비와 생활비 지원 때문에 어머니께는 송금을 부정기적으로 하고 있지만, 남동생이 형의 이러한 입장을 이해하고 어머니께 송금과 선물을 더 자주 보낸다. 김에르네스트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 여동생을 고맙게 여겨 여동생 딸(18)에게 스마트 폰 등 선물을 가끔 보낸다.

2) 통신수단을 통한 정서적 지지

토마스(Thomas 1993)는 정서적 지지를 어떤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감정 상태’로 정의하고, 이는 특정 사람에 대한 ‘돌봄에 관여하고 있는 활동상태’, 즉 실제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지리적으로 부모와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가 가까이에서 부모를 돌볼 수는 없다. 원거리에 있는 자녀는 일반적으로 국제전화, 스카이프 등 정보통신기술(ICTs)을 이용해 본국의 부모에 대한 ‘정서적 지지’를 하고 있다. 한국의 고려인 성인자녀도 본국 방문을 통해 부모를 돌보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ICTs를 이용한 가상공간에서 부모의 안부를 묻거나 필요한 정보를 전달한다. 이는 부모에 대해 ‘마음을 쓰고 있다’는 자신의 정서적 상태를 표현하는 것인데, 본 연구의 모든 고려인 성인자녀는 이러한 정서적 지지를 일상적으로 하고 있다.

ICTs를 이용한 부모와의 접촉 빈도는 개인 또는 가족마다 차이가 있지만, 한국의 성인자녀 부부 모두가 주중에 일을 하기 때문에 주로 주말에 부모와 연락하는 점은 공통적이다. 통상 정해진 시간에 전화를 했을 때 부모가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 한국의 자녀는 우즈베키스탄

내 친척들에게 연락하여 부모님이 전화 받지 않는 이유를 확인하려 든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타슈켄트 시 인근 농촌에 사는 최알렉산드로(남, 31)의 아버지 최표트르(71)는 자신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한국에 있는 아들과 딸들이 주로 전화를 주말에 하기 때문에, 시차를 계산해 전화 올 시간이 되면 셀 폰을 몸에 가지고 다닌다. 만일 전화 연결이 되지 않으면 자식들이 인근에 사는 모든 친척들에게 전화해 엄마아빠가 전화를 받지 않는데 무슨 일 있냐고 ‘소란’을 피우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화를 받지 못하기라도 하면 주변사람들의 핀잔을 받기 일쑤지만 자식들이 우리를 늘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흐뭇하다.

최표트르의 말대로 부모들은 전화 연락이 되지 않아 ‘소란’이 일어나도 내 자식이 나에게 관심이 있음을 느끼고 있다. 타슈켄트 시에 살고 있는 최로자(여, 31)의 어머니 박나탈리아(57)는 한국에 있는 세 명의 딸 전화를 하루에도 2~3번씩 받는다. 박나탈리아는 딸들의 전화를 받을 때면 너무 보고 싶어 자주 운다. 18여 년 전에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 세 딸을 키운 그녀에게 딸들은 너무 소중한 존재다.

한국의 딸들이 오늘날 해도 3번 전화를 했다. 엄마 보고 싶다고 전화를 자주한다. 딸들은 한국이 다 좋는데 엄마를 안아주고 싶을 때 그렇지 못해 아쉽다고 늘 말한다. 나도 전화를 받을 때마다 딸들을 안아주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해 자주 운다. 한국에 딸들 보러 가고 싶지만 내 몸이 아파 비행기를 탈 수 없다(박나탈리아, 여, 57).

우즈베키스탄 내 고려인 가정마다 ICTs의 환경에도 차이가 있다. 한국의 고려인 성인자녀는 모두 스마트 폰과 개인용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다. 반면 우즈베키스탄의 12개 가구(안산 자녀의 3가구 포함)의 부모 가운데 7개 가구는 부모의 한쪽만 이동통신수단을 소유하고 있으며(이 가운데 3가구는 스마트 폰 소유) 나머지 5개 가구는 유선 전화만 있다. 전체 12개 가구의 부모 가정 중 4개 가구는 개인용 컴퓨터로 한국의

자녀와 스카이프를 이용한 화상통화를 하는데 이들 모두 타슈켄트 시내에 거주한다. 개인용 컴퓨터는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한 자녀가 부모와의 화상통화를 위해 설치해 준 것들이다. 스카이프를 이용하는 부모는 컴퓨터 사용이 익숙지 않지만 자녀가 본국 방문 시에 알려준 대로 하거나 함께 사는 다른 자녀나 손자녀의 도움으로 스카이프를 한다.

스카이프와 같은 ICTs를 이용해 가족원의 얼굴을 보면서 일상적 대화를 함으로써 가족원들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함께 있는 것처럼 가상적 세계에서 친밀함을 느낄 수 있다.¹²⁾ 성인 자녀는 화상을 통해 노부모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손자들의 재물을 부모님께 보여드릴 수 있다. 부모는 스카이프를 통해 한국생활 하는 자녀의 일과를 들여다 볼 수 있어 멀리 있는 자녀 걱정과 그리움을 다소 해소한다. 스카이프를 이용하는 타슈켄트의 백세르게이(남, 35)와 한국의 박아나톨리아의 다음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

매주 일요일마다 스카이프로 한국 식구들을 만날 수 있다. 스카이프가 있어 이들부부와 손주들 얼굴을 볼 수 있어 너무 좋다. 큰 손자가 언젠가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한국 노래를 부르는데 무슨 말인가 잘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너무 잘해서 안아주고 싶었다. 사실 큰 손자는 내가 4년 동안 키웠다. 한국 간 뒤로 아들은 약 15kg 그리고 며느리는 10kg 살이 빠졌다고 한다. 스카이프로 보기도 살이 빠진 것을 알 수 있어서 일이 힘들어 빠진 것 같은데 안타깝기도 하지만, 아들의 경우 이곳에서 살이 너무 쪼을 때보다 더 건강하게는 보이더라. 이제는 스카이프로 다 알 수 있지 않은가!. 그런데 살고 있는 집은 춥지 않고 따뜻한가 보더라. 손자들이 겨울인데 짧은 속옷만 입고 집에서 놀더라. 모두 스카이프로 봤다. 그래서 추운 겨울 걱정은 덜 하게 되었다(백세르게이 어머니, 65).

옛날에 전화만 한 것에 비해 스카이프로 얼굴도 보고 하니 살아 있는 것

12) 국경을 두고 멀리 떨어져 있는 초국적 가족원들이 상호 일상적 삶에 지속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바를 ‘부재적 존재(absent presence)’라 지칭한 페티에라(Pertierra 2005)는 ICTs의 혁명적 발달은 이주자의 ‘여기와 저기의 동시 존재’를 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한다(김경학 2014: 44 재인용).

같은 느낌이 든다. 언젠가 스카이프를 하는데 어머니의 얼굴이 좋지 않아서 “요즘 잘 못 먹고 사는가요?”라고 물어봤는데, 옆에서 아버지자 등장하여 잘 먹고 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하고 그러시더라(박아나톨리아, 남, 39).

광주의 박아나톨리아가 “얼굴을 보고 하니 살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표현과 백세르게이 어머니의 “스카이프를 이용하면서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는 말은 초국적 가족원 간의 ‘가상적 친밀함(virtual intimacy)’의 공유를 잘 드러낸다. 타슈켄트의 백세르게이 어머니는 스카이프 하는 날인데 집에 인터넷이 안 되면 마음이 불안해서 남편에게 인터넷을 빨리 고치라고 종용한다. 그녀는 인터넷이 결국 안 되면 셀 폰으로나마 세르게이에게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 안부를 확인해야 마음이 놓인다고 말한다.

개인용 컴퓨터를 직접 소유하고 있지 않는 가정 가운데 컴퓨터를 소유한 인근의 다른 자녀나 손자녀의 도움을 받아 스카이프로 가끔 한국의 자녀의 얼굴을 보는 부모도 있다. 광주 송크세니야는 부모 얼굴을 보고 싶을 때면 부모님과 따로 타슈켄트 시내에서 살고 있는 막내남동생에게 노트북을 갖고서 부모님 집에 가게 하여 부모님과 화상통화를 한다. 이처럼 본국의 가족과 친족원은 한국 이주 자녀와 남겨진 부모를 연결해 주거나 부모의 근황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초국적 네트워크인 셈이다. 부모가 아프더라도 외국에 있는 자녀에게 질병을 감추기 때문에¹³⁾ 한국의 성인자녀는 부모 인근의 친인척 네트워크를 통해 부모의 근황을 접할 수 있다. 타슈켄트 시내에 사는 막내 이모의 딸, 즉 최알렉산드로의 사촌 여동생은 최알렉산드로 부모님의 건강을 비롯한 근황들

13) 광주의 박안드레이(남, 45) 부부가 한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박안드레이의 어머니가 두 명의 딸을 5년 이상 우즈베키스탄 안디잔에서 돌보다가 2012년에 한국으로 합류하였다. 그는 어머니가 한국에 오셔서야 그간 혈압과 당뇨로 고생하신 것을 알게 되었다. 박안드레이처럼 통신기술을 이용해 부모의 건강을 알고 싶어 하지만 부모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건강함과 무탈을 강조함으로써 이국땅에 살고 있는 자녀의 근심을 덜어주려 한다. 자녀들이 우즈베키스탄 방문을 해서야 또는 부모가 한국을 방문해서야 부모의 질환 발병 사실을 아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을 한국에 있는 최알렉산드로에게 SNS를 통해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특히 부모님이 일을 보시러 타슈켄트의 그녀의 집을 방문할 때마다 그녀는 스카이프를 연결해 한국의 사촌오빠와 화상통화를 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 국제전화나 스카이프 등의 정보통신기술의 인프라 여건과 이용방법 및 비용의 차이 때문에 한국자녀와 본국의 부모 간의 ICTs를 통한 연락은 한국의 자녀가 우즈베키스탄의 부모에게 먼저 연락을 취하고 부모는 연락을 받는 형식이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이동통신기술을 이용한 정보교환은 흔히 한국의 자녀가 본국의 부모에게 연락을 취하는 ‘일 방향적’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가상세계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접촉을 통한 정서적 지지는 일 방향적인 것이 아닌 부모가 자녀를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위로해 주는 ‘쌍 방향적’인 성격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3) 본국 방문 및 한국으로의 초청

초국적 돌봄이 지역과 국가를 중흥하면서 가족과 친구 등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순환하고 있지만, 이러한 돌봄의 순환이 근거리에서 직접 행하는 돌봄과 모든 점에서 똑같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사실 멀리서 돌봄을 제공하는 것은 어려울뿐더러 시간과 재원을 필요로 하며 사람을 지치게 만들기도 하는 어려운 일이다(Baldassar and Merla 2014: 22). 국제이주로 인해 부모와 근거리에서 일상적 방문과 식사제공 및 간병 등을 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흔히 이주 성인자녀는 부모에 대해 죄의식과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은 기회가 되면 본국을 방문하여 부모와 시간을 보내려고 한다. 발다사와 발독(Baldassar and Baldock 2000)은 이주자가 본국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멀리서는 할 수 없는 성격의 돌봄을 직접 하기 위한 것이며, 이주자 자신에게도 잠시나마 고향의 공기를 마실 수 있어 향수병을 치

료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주장한다. 부모 돌봄을 위해 이주 성인자녀가 본국을 방문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주지로 부모를 초청하여 장·단기간 함께 거주하면서 부모를 돌보는 일도 매우 흔하다.

(1) 본국 방문

대부분의 한국 체류 고려인은 방문취업비자(H-2) 또는 재외동포비자(F-4)를 소지하고 있다. 만 25세 이상 60세 미만의 고려인 동포에게는 5년간의 한국 체류를 허가하는 H-2비자가 발급되며, 일정 학력 등 전문적 자격이 있거나 H-2로 한국에 체류하면서 일정 조건을 갖춘 고려인 또는 만 60세 이상의 고려인 동포에게는 F-4비자가 발급된다. 이 두 종류 비자 모두 비자 기간 내에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왕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 체류하는 성인자녀의 우즈베키스탄 방문이나 우즈베키스탄 부모의 한국 방문을 위한 출입국 정책은 다른 외국인에 비해 매우 개방적이다.

본 연구 대상 성인자녀의 한국 체류 평균 기간은 약 3년 9개월이며, 이들은 이 기간 동안 1~3회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한 바 있다. 해외 체류 우즈베키스탄 국적 소유자는 2015년까지 신형 여권으로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최근 2-3년 내에 본국을 방문한 성인자녀가 많다. 이밖에 가족의 통과의례 참여를 위해 본국을 방문한 사람도 적지 않은데, 이들은 돌잔치·결혼식·환갑잔치에 축의금만 보내도 되지만 이런 통과의례가 부모를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기 때문에 바쁜 중에도 일부러 본국 방문을 한다. 2014년 초에 첫 손주 탄생을 기념한 가족모임 차 타슈켄트를 다녀온 안산 거주 김에르네스트(남, 56세)와 조카 결혼식 참석 차 2014년 말에 타슈켄트를 방문한 박빅토르(남, 55)는 행사참여를 ‘핑계 삼아’ 2~3년 만에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 본국을 방문했다고 말한다. 박빅토르는 우즈베키스탄 갈 때 부모님께 드릴 의복, 한국 이불, 전기밥솥

등을 가져갔다. 남동생이 부모님 가까이에서 살면서 부모님을 돌보고 있는데, 박빅토르는 지난 2014년 연말의 본인의 방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2014년 8월에 어머니의 당뇨가 악화되어 다리 한쪽을 절단할 때 난 직장 에서 휴가를 받지 못해 직접 타슈켄트에 가지 못해 정말 안타까웠다. 내가 장남인데 타슈켄트의 남동생에게 어머니 수술을 맡기고 난 병원비의 일부를 송금할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이 늘 있었는데 조카가 결혼한다고 해서 타슈켄트를 다녀왔지만 사실은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을 전하고 다리 한쪽을 잃은 것을 위로해 드리고 싶었다.

부부 모두 공장을 다니는 등 생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여권변경이나 부모와 가족원의 중병 또는 사망과 결혼 등 주요 통과의례의 참석 등 뚜렷한 이유 없이 본국을 방문하기는 쉽지 않다. 최알렉산드로 부부와 최로자(여, 31) 부부도 여권 변경을 위해 한국 이주 후 처음으로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한 바 있다. 이들은 여권변경과 출국비자(exit visa)¹⁴⁾ 발급에 소요되는 약 2~3개월의 체류기간 동안 부모 가까이에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부모님이 해준 음식을 오랜만에 맛볼 수 있어서 몸과 마음의 위로까지 받을 수 있었다고 자신의 본국 방문을 기억하고 있다. 여권 변경을 위해 2013년 연말에 본국을 방문한 최알렉산드로 부부는 다리 관절염이 심해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위해 아버지께 중고 승용차를 구입해 드린 이야기를 아래처럼 한다.

14) 우즈베키스탄의 국민은 해외로 출국 시에 출국비자(exit visa)를 받아야 한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출국비자가 자국민의 테러로부터 보호라는 명분 때문에 발급한다고 주장하지만, 야당과 인권단체들은 자국민을 서방세력과 접촉하거나 특히 반체제 인사의 출국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이 비자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발급 시 미화 약 25불에 해당하는 경비가 소요되며, 출국비자 없이 출국하려는 사람은 무거운 벌금 또는 최대 1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단 우즈베키스탄 국적자가 러시아를 포함한 독립국가연합(CIS) 국가로 출국할 때는 출국비자가 면제된다. 이 비자 발급을 위한 소요시간은 약 2주라고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20~30일 이상 소요된다고 한다. 따라서 2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고려인 방문자는 출국비자까지 받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 이상은 체류해야 한다.

아버지는 2013년에 광주에 오셔서 3개월 동안 우리 집과 두 명의 누나 집에서 쉬시다 가셨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지 못한 어머니가 더 보고 싶었다. 마침 여권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에 갔는데, 어머니의 다리 상태가 더 안 좋아져서 거동이 불편하신 어머니를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다. 어머니의 돌아다니시는 데에 편하게 아버지께 중고 승용차를 구입해 드렸다. 어머니가 편하게 거동하시는 데 도움을 주고 싶었다. 곁에서 도와드리지 못한 마음의 짐을 조금은 덜고 싶었다.

(2) 한국으로의 초청

한국에 정착한 성인자녀가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부모를 직접 돌볼 계획을 세울 때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본국을 방문하면 부모를 포함한 확대 친족원을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족 전체가 이동할 때 큰 경비 지출이 요구되고, 부부 중 한 사람만 이동할 때 떠맡아야 하는 육아부담, 장기간 휴가를 주는 직장이 거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자녀의 본국방문보다 부모를 이주지로 초청하는 것이 여러 이유로 보다 유리하고 실용적이라 판단되면 부모를 한국으로 초청해 가까이에서 장·단기간 돌봄을 제공한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자녀 없이 부모만 살거나 부모가 심각한 질병에 노출되어 있을 때 정착지 한국으로의 부모 초청은 매우 적극적으로 고려된다.

박아나톨리아와 김엘레나(34) 부부는 2008년부터 광주에 살고 있는 언니부부의 도움을 받아 광주에 정착하였다.¹⁵⁾ 우즈베키스탄 호레즘(Khorezm) 주의 주도 우르겐치에 남동생(22)과 살고 있는 어머니(58)가 2012년에 자궁암 진단을 받았다. 한국의 의료기술이 뛰어나다는 생각에 두 딸은 어머니를 광주로 모셔 국립대 JNU 병원에서 자궁암 수술을 받게 해 드렸다.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병원비 부담이 컸지만

15) 김엘레나 언니부부는 한국인과 결혼해 광주에 살고 있는 30년 지기 친구가 광주로의 정착을 도와줘 2008년부터 광주에 살고 있다. 박아나톨리아와 김엘레나 부부는 2011년에 광주에 사는 언니부부의 도움으로 광주에 와서 언니 집에서 4개월 신세지고 독립했다. 이는 사실상 국제이주의 맥락에서의 돌봄이 가족과 친족원 외에도 친구 등으로 확장되어 순환되어 감을 보여준다.

김엘레나 부부와 형부는 공장을 다니면 병원비를 감당했고 언니는 직장을 잠정적으로 그만두고 어머니를 간병했다. 수술 예후가 좋아 어머니는 4개월 광주에서 두 딸의 간병을 받은 후 본국으로 귀국했다. 2015년 6월 초에 경과 검사를 위해 어머니는 다시 광주를 방문했으며 같은 해 11월에 귀국할 예정이다. 어머니의 한국 방문 비용과 체제 등 일체 비용은 두 딸 부부가 지원하고 있다.

건강문제 등 긴급 사안이 아닌 관광이나 휴가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고려인 부모도 적지 않다. 송크세니아의 어머니는 2015년 6월 초에 남편(71)이 카자흐스탄의 남동생과 매년 2월 말에서 12월 초까지 하는 ‘고본질(계절농사)’을 갖기 때문에 약 6개월을 한국의 송크세니아의 집에서 보내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방문 일주일이 지나서부터 어머니는 비오는 날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배·블루베리·아로니아 농장에서 일용직 아르바이트¹⁶⁾를 한다. 송크세니아는 힘들게 일하는 어머니의 건강이 걱정되어 어머니의 아르바이트를 만류하지만, 어머니는 아직 딸에게 고백하지 않은 자신의 아르바이트 목적을 다음과 같이 연구자에게 들려주었다.¹⁷⁾

딸은 매일처럼 힘들게 일하는 내가 병날까봐 걱정하면서도 내가 뭘 위해 이처럼 열심히 일하는지 아직 모를게다. 타슈켄트에 있는 아들에게만 국제전

-
- 16) 광산구 ‘고려인마을’에 진출한 일용직 용역회사는 공장에 근무하지 않는 장년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전남 나주와 문평 일대의 배·블루베리·아로니아 농장에 필요한 일손을 공급하고 있다. 출발시간부터 귀가시간까지 약 12시간 소요되는 일일노동에 대한 일당은 대략 6만 원~6만 5천원 사이다. 매일 30~40명 이상의 고려인이 농장 일뿐만 아니라 ‘2015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처럼 일회적인 행사에도 일용직으로 공급된 바 있다. 최근 두 개의 용역회사의 사무실이 ‘고려인마을’에 개입하여 고려인은 안정적인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용돈이 필요한 장년과 노년층에게 일용직은 호응이 매우 좋은데, 이들은 이런 일을 ‘아르바이트’라고 부른다.
- 17) 연구자는 송크세니아 어머니 황타티아나를 2014년 12월 말에 타슈켄트에서 다른 가족들과 함께 만나서 인터뷰를 한 바 있다. 우연치 않게 황타티아나가 2015년 6월에 한국 자녀를 만나기 위해 광주를 방문하여 연구자는 다시 황타티아나를 대상으로 2015년 8월에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며, 두 번째 만날 때는 타슈켄트에서의 만남보다 훨씬 친밀한 분위기에서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화로 내 꿈을 귀땀했는데 난 광주에 있는 동안 가능한 많은 현금을 모아서 돌아갈 계획이다. 남편이 카자흐스탄에서 약 1/2헥타르 땅에 고본질을 하는데 비용에 비해 수익이 너무 낮아 어떤 해에는 아무 것도 남는 게 없다. 남편이나 나는 농사일 하는 것을 좋아한다. 러시아 국적자인 내 두 여동생과 남동생 한 명이 러시아 로스토프 주에서 비닐하우스에 토마토와 오이 등을 재배해 러시아 도시들로 파는데 크게 힘들지 않고 수입도 좋다고 우릴 그곳으로 오라 한다. 동생들이 정착부터 많은 것을 도와주겠다고 한다. 50만 루블(한화 약 900만 원)이면 거처할 작은 집이 딸린 비닐하우스 3동을 구입할 수 있는데, 현재 소유한 카자흐스탄 농지와 중고 자동차, 기간 모아둔 작은 돈에 내가 지금 광주에서 일하면서 모은 돈을 합치면 원하는 비닐하우스를 구입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것은 나의 마지막 꿈이며 꼭 이 꿈을 실현시키고 싶다(황타티아나, 여, 68).

황타티아나는 자신의 ‘마지막 꿈’의 실현에 도움이 되는 기회를 준 딸 부부의 초청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 사실 송크세니아는 어머니의 방문을 앞두고 어머니의 한국생활이 불편할까 싶어 침실 2칸과 거실로 구성된 기존의 주택 2층 독채(월세 40만 원)에서 침실 3칸과 거실이 있는 현재의 빌라(월세 53만 원)로 지난 4월 말에 이사해 어머니가 방한 칸을 별도로 사용할 수 있게 배려했다. 사실 어머니가 옴으로써 더 많은 집세를 지출하고 있는 셈이다. 이뿐만 아니라 송크세니아는 어머니가 길을 잃을까 싶어 중고 핸드폰도 사드려 수시로 어머니 위치를 파악한다.

어머니가 한국에서 그냥 쉬었다 가시면 좋겠는데 아르바이트가 있을 때마다 나가셔서 일을 하신다. 돈을 이렇게 열심히 벌어 무엇을 하실지 몰라도 기왕 일을 하신다니, 나는 어머니께 용돈을 별도로 드릴 터니 여기서 버신 것을 일절 사용하지 말고 모아서 가시라고 말씀드렸다. 사실 어머니가 한국에 오신 뒤 나는 돌봐야 할 아이가 두 명에서 한 명 더 늘어 세 명이 되었다. 공장에서 일하다 쉬는 시간에 어머니께 전화를 했는데 어머니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혹시 길이라도 잃었을까 싶어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나중에 어머니께 물어 보면 어머니는 내가 사준 핸드폰을 일을 하다 분실할까 싶어 집에 놔두고 다니신다는 것이다. 어머니가 우즈베키스탄에 돌아가시기 전에 고려민주민지원

센터에서 주선하는 건강검진도 받게 할 생각이다. 2년 전에도 한 번 받고 가
셨다(송크세니아, 여, 41).

딸은 어머니를 배려해 새 집으로 이사하고 핸드폰도 준비하고 또한
건강검진¹⁸⁾을 받게 하는 등 곁에 어머니가 있는 동안 많은 돌봄을 제공
하고자 한다. 물론 아르바이트 없는 날 어머니는 식사준비와 세탁 및
집안 살림을 도와주기 때문에 어머니의 단기 방문은 부모와 자녀 간의
돌봄에 호혜적 성격도 있음이 분명하다. 부모와 자녀의 호혜적 성격의
돌봄은 사실 성인자녀들이 국제이주를 떠나면서 시작되는 ‘가족의 발달
주기’의 과정 가운데 가족분거와 가족재결합 과정에서 흔히 발견된다.
고려인 성인자녀의 국제이주 초기에 남성 단독으로 한국에 온 뒤 부인
과 자녀가 남편에 합류하거나 또는 자녀를 조부모에게 맡기고 부인만
합류하는 단계가 일반적이다. 이 연구의 5개 가구¹⁹⁾의 노부모는 아들부
부의 자녀나 딸 부부의 자녀를 우즈베키스탄에서 돌보고 있다. 또한 광
주의 2개 가구의 성인자녀는 본국의 부모에게 자녀를 일정 기간 맡겨
두었다가 나중에 광주로 합류시켰다. 손자녀를 본국에서 장단지 돌보는
노부모는 해외에 체류 중인 성인자녀의 돌봄만을 일방적으로 제공받는
수혜자라기보다는 손자녀를 돌보는 돌봄 제공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돌봄이 가족 내에서 세대를 횡단하며 순환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
다.

우즈베키스탄의 노부모가 해외의 자녀에게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국경을 넘는 가장 전형적인 맥락은 한국에 있는 딸과 며느리의 출산에
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려인마을’ 주변에서 임신한 고려인 젊은

18) 황타티아나는 우즈베키스탄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것보다 의료기술이 뛰어난 한국에
서 검진을 받고 가면 “믿음이 생겨 의심이 없다.”고 말한다. 2년 전 검진에서 신장
과 위가 좋지 않다고 해서 약을 받아 갔고 신장에 작은 혹이 있다고 했는데, 이번
검진에서 이 혹을 확인하고 싶다고 했다.

19) 2명의 어머니는 딸의 이전 결혼으로 낳은 아이를 보거나 이혼한 딸의 아이를 돌보고
있고, 3명의 어머니는 광주에 있는 성인자녀부부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여성을 보는 일은 어렵지 않다. 광주 고려인가족지원센터장 신조야(여, 58)는 이민생활 하는 고려인 젊은 여성의 한국에서의 출산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말한다. 고려인 산모가 한국의 의료기술을 신뢰하고 있으며 게다가 고려인가족지원센터와 일부 산부인과, 예컨대 광주 M 산부인과 전문병원과의 의료지원협약 체결로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광주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의 최알렉산드로 어머니는 며느리의 출산을 돕기 위해 2015년에 광주를 방문했다. 7월 초에 출산 하는 며느리의 몸조리와 육아를 돕기 위해 어머니²⁰⁾는 광주에 체류하다가 지난 9월 말에 귀국했다. 아들 알렉산드로는 어머니의 항공료 지원뿐만 아니라 체류 기간 중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의 이동의 편의를 위해 승용차도 구입했다.²¹⁾

출산을 돕기 위해 방문하는 부모가 출산 도우미 역할을 끝내면 한국에 장·단기 체류하면서 일용직으로 노동시장에 개입해 목돈을 벌어서 본국으로 귀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큰 딸의 두 명의 아이 출산을 돕기 위해 김그레고리 부모님은 광주를 방문하여 길게는 1년 가까이 큰 딸 집에 머물면서 어머니(63)는 모텔 청소를 아버지(63)는 공단에서 일용직으로 일해 목돈을 벌어서 간 적이 있다. 2014년 12월 말에 타슈켄트에서 만난 김그레고리 아버지는 당시 경험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큰 딸이 한국 남자와 결혼했는데 출산한다고 해서 우리 부부가 광주에 갔다가 나중에 집사람과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귀국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20) 최알렉산드로 어머니는 연구자가 2014~2015년 3주간 타슈켄트 현지조사 기간 중에 알렉산드로 집에서 심층인터뷰를 하면서 만난 바 있는데, 우연치 않게 2015년 8월에 광주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 인터뷰를 재차 할 수 있었다. 이번이 처음 한국 방문인 알렉산드로 어머니와의 대화를 통해 며느리 출산을 위해 우즈베키스탄에서 준비해 온 물품, 고려인 산후 조리방식, 체류 기간 동안의 활동 계획 등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21) 최알렉산드로는 한국에 영주 거주할 계획으로 한국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승용차를 구입하고자 계획했는데, 어머니의 방문에 맞춰 계획보다 조금 앞당겨 승용차를 구입했다. 그의 4명의 형제자매 모두가 한국에 체류 중이고 부모님은 2016년에 한국으로 합류할 계획이다.

는 젊은 사람도 일자리가 없는데 한국에는 우리처럼 나이 먹은 사람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았다. 집사람은 사무실이나 모텔에서 청소하느라 고생이 많았는데, 나는 공장에서 일을 했다. 내가 나이 먹었다고 약간 괘시받는 느낌은 받았는데, 내가 소련시절에 기술자였기 때문에 공장에서 실력도 인정 받았다. 한국에서 벌어들인 목돈이 우즈베키스탄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다. 조금만 더 젊으면 다시 한국 가서 일하고 싶다(김그레고리 아버지, 63세).

부모가 자녀를 방문해 출산과 같은 ‘삶의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주고 자녀는 부모의 장·단기 체류를 지원하며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은 초국적 가족 내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호혜성을 토대로 한 돌봄이 세대를 횡단하여 순환하는 국면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부모의 한국체류가 세대 간, 특히 노부모와 성인자녀 간 또는 성인자녀 부부 간의 긴장을 불러올 수 있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노부모와 성인자녀 모두 인내심을 발휘해야 해야 한다. 광주에서 머무는 동안 딸과 사위가 자신의 존재를 배려해 행동하고 있는 바에 대해 송크세니야 어머니는 다음과 같이 고마움을 표현한다.

내가 한국에 온 뒤로 사위와 딸이 서로 목소리를 높여 타툰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너무 다행이고 두 사람에게 고맙게 생각한다. 비 와서 일 나가지 못하는 날에나 차분히 집에서 식사와 세탁 등 집안 살림을 해주고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데 내 앞에서 부부가 싸우지 않고, 또 손주들이 나를 챙겨주는 것 같아 고맙게 생각한다. 사실 나도 내 집이 아니어서 들고 나는데 맘이 편치는 않아도 내색을 하지 않는다. 사실 내 사위는 어렸을 때부터 봐서 특별히 어렵지는 않지만 사위와 장모라는 것이 다 그렇잖아요.

5. 노부모에 대한 초국적 돌봄 실천과 남겨진 부모의 인식

1) ‘협상된 개입(negotiated commitments)’

초국적 돌봄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분석 수준들 간의 상호연관성에

주목해야 한다. 발다사(Baldassar 2008)는 초국적 가족의 돌봄이 미시, 중위, 거시적 수준의 요인들의 특정한 조합이 반영된 ‘협상된 개입’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미시적 수준에는 초국적 가족과 친족, 돌봄 제공 의무에 대한 문화적 개념에 따른 개인적 선택 등의 요인, 중위적 수준에서는 돌봄 제공을 지원하는 공동체와 지원 단체, 민족 네트워크, 공동체의 정착 경과 등의 요인, 그리고 거시적 수준에는 통신 인프라 구조에 대한 접근성, 출입국 비자, 건강의료보험, 돌봄 서비스를 위한 국가적 규정, 정착과 이민자 통합을 관장하는 사회와 이민에 관한 정책 등의 요인이 있다.

우즈베키스탄 부모에 대한 초국적 돌봄에 관여하는 미시적 수준의 요인에는 해당 고려인 가족사와 인생사, 우즈베키스탄과 한국 외의 다양한 국가에 거주하는 초국적 가족과 친족 네트워크, 송금과 방문에 필요한 이주자의 재원과 시간 동원 가능성, 노년과 돌봄에 관한 고려인의 문화적 개념 등이 있다. 한편 우즈베키스탄과 한국 방문을 위한 출입국에 관한 법률과 이민정책, 재외동포에게 부여하는 비자유형, 양국의 교통과 정보통신 인프라 구조 성격, 우즈베키스탄의 의료와 연금복지 내용, 한국의 건강의료보험 적용범위 등은 거시적 수준의 요인들에 해당된다.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연합회’와 ‘고려인문화협회’ 그리고 광주광역시 지역의 고려인 정착을 지원하는 ‘고려인가족지원센터’와 같은 관련 단체 등의 활동은 중위적 수준의 요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우즈베키스탄과 한국 현지에서 중위적 수준의 요인이 초국적 돌봄에 개입될 여지는 많지 않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의 노부모에 대한 성인자녀의 초국적 돌봄은 일반적으로 거시적 수준의 요인과 미시적 수준의 요인 간의 조합에 의해 타협된 개입의 결과에 따라 실현된다. 현재 우즈베키스탄 내의 고려인 노년세대의 사회보장의 지원하는 관련 공동체 또는 기관은 ‘아리랑요양원’을 제외하고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광주광역시의 ‘고려인가족지원센터’와 같은 한국 내 지원 단체가

고려인에 대한 의료지원²²⁾ 및 고용주선 등의 방식으로 한국에 장·단기 체류하는 고려인 노년 세대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5년 8월 현재 광주에 체류하고 있는 김엘레나 어머니는 2년 전에 한국에 와서 암 수술을 받았고, 수술 경과 검사를 위해 재차 한국을 방문해 딸들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 이러한 초국적 돌봄은 더 뛰어난 의료혜택을 어머니께 제공해야 한다는 딸 부부의 생각과 비싼 의료비용을 감당하기 위한 김엘레나 부부와 형부의 근로활동과 언니의 간병활동이란 가족 내 역할분담 등의 미시적 수준의 요인들과 우즈베키스탄과 한국의 의료수준의 차이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이 상대적으로 개방된 한국의 이민법과 제도 등의 거시적 수준의 요인들의 조합에 의한 타협의 산물이다.

송크세니아와 한세르게이 부부는 2012년 2월에 광주에 정착했다. 송크세니아 언니(43)는 2002년 미국으로 이민 가서 꽃가게를 운영하는 데, 남편의 건강악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부모님께 송금하지 못한다. 그녀는 미국으로 이민 간 후 단 한 번도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지 않았다. 미국 시민권 취득 후 그녀의 가족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여 부모님 집에서 지내기 위한 비자 신청에는 많은 서류가 필요하다. 이런 번거로운 출입국 정책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그녀는 이민 간 후 단 한 번도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지 않았다.²³⁾ 그녀는 이민 간 후

-
- 22) 광주의 일부 성인 자녀와 그들을 방문하는 부모들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재 의료보험 없는 고려인 중환자를 위해 광주 고려인주민지원센터는 광주광역시 일부 대형 병원과 의료지원협약을 맺어 병원비의 일부를 감면받고 있다. 또한 막대한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고려인 가족을 위해 고려인주민지원센터의 대중매체인 ‘나눔방송’과 SNS를 통해 한국인, 주로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수술비 모금운동을 자주 하는 편이다. 물론 이러한 모금운동에 광주에 거주하는 고려인들도 소액이나마 참여하고 있다. 고려인가족지원센터와 광주의 고려인공동체가 돌봄 실천에 개입된 경우 중위적 수준의 요인들도 고려되어야 한다.
- 23) 관광비자로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는 외국인인 도착 후 3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며 호텔에서만 투숙해야만 한다. 민간인 집에서 기거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비자 등 다른 비자를 필요로 하는데, 이런 비자 발급에는 많은 서류가 필요하여 번거롭다. 우즈베키스탄은 출국비자를 통해 내국인의 출입국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입국하는 외국인의 동선도 통제하는 편이다.

처음으로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2013년에 우즈베키스탄이 아닌 미국 시민권자가 쉽게 입국할 수 있는 한국의 여동생 송크세니야 집을 방문했다. 어머니를 한국의 동생 집으로 오시게 하여 광주에서 한꺼번에 많은 가족들의 상봉이 성사되었다. 3주 동안의 한국 체류기간에 송크세니야 언니는 한국 관광을 포함하여 모처럼 어머니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부모를 만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방문 대신 한국을 선택한 점 등은 송크세니야 가족의 이민사라는 미시적 수준의 요인과 출입국 정책과 같은 거시적 수준의 요인들의 조합에 따른 산물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송크세니야의 남편 한세르게이(37)는 삼남매의 맏이로 아래로 여동생 두 명이 있다. 한세르게이보다 1년 빠른 2011년에 광주에 먼저 이주할 둘째 여동생 가족이 한세르게이 부부의 광주 이주와 정착에 큰 도움을 주었다. 막내여동생은 카자흐스탄 고려인과 결혼해 카자흐스탄에서 산다. 사실 카자흐스탄 출신인 어머니는 우즈베키스탄 출신 남편을 만나 결혼하였으며 남편(한세르게이 아버지)은 2011년 사망하고 현재는 홀로 타슈켄트에 살고 있다. 혼자된 어머니를 돌보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늘 느끼고 있는 한세르게이가 어머니를 한국으로 모시고 싶었으나, 방문취업비자(H-2)와 재외동포비자(F-4) 발급에 필수적인 ‘고려인출생증명서’를 분실한 어머니는 한국에 입국해도 장기 체류하기 어렵다. 제도적인 이유로 어머니를 모시지 못하는 한세르게이는 늘 어머니께 미안하고 죄스런 마음을 지니고 살아간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어머니를 한국으로 모셔올 수 없다는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다. 어머니는 아들과 큰딸이 있는 한국을 방문하는 대신 친정 식구들과 막내딸이 있는 카자흐스탄을 자주 방문한다. 2015년 8월 현재 어머니는 임신한 막내딸을 돕기 위해 카자흐스탄에 체류하고 있다. 한국의 한세르게이와 여동생은 어머니께 정기적 송금과 국제전화를 하며,²⁴⁾ 카자흐스탄의 막내여동생

24) 타슈켄트에서 만난 한세르게이 어머니(64)는 본인의 삼성 스마트폰으로 한국의 아들이 보낸 손주의 유치원 생활에 관한 사진을 연구자에게 보여주면서 아들과 딸이 자

은 홀로 있는 어머니를 방문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을 자주 가는 편이다. 한국의 한세르게이와 여동생은 카자흐스탄의 막내여동생을 통해 어머니의 근황을 파악한다.

앞서 살펴 본 김엘레나와 송크세니야 및 한세르게이의 가족의 ‘초국적 사회적 장’에서 유지되는 가족유대는 한국과 카자흐스탄 및 러시아 등에 이산된 가족과 친족 관계 네트워크, 돌봄에 필요한 자녀의 현금과 시간 동원능력, 물리적 거리에 따른 돌봄 노동의 분화(근거리 자녀는 직접적 돌봄 활동, 원거리 자녀는 현금지원), 돌봄의 의무라는 문화적 개념 등의 미시적 수준의 요인들이 해당 국가들의 출입국에 관한 법률 및 이민정책, 국가의료체계, 국제 관계사 및 국가체계의 친연성 등의 거시적 수준의 요인들과의 조합에 의해 부모에게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실천이 협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국제이주에 대한 노부모의 인식

성인자녀의 국제이주가 남겨진 노부모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는가를 노부모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은 국제이주, 가족의 분거, 초국적 가족 유대 및 돌봄, 가족재결합 등에 대한 노부모 인식의 단면을 파악할 수 있게 할 것으로 생각된다. 남겨진 노부모는 자녀의 국제이주로 가족 이별이라는 정서적 고통을 경험하지만, 국제이주를 젊은 자녀가 직면한 불편한 현실 타개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인식한다. 자녀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 때문에 ‘자녀 사진보기’와 같은 새로운 일과나 습관이 노부모의 일상에 자리 잡게 된다. 노부모는 자녀의 이주 기간이 길어지면서 송금과 같은 물질적 지원뿐만 아니라 전화나 화상통화를 통한 자녀의 정서적 지지를 자신들에 대한 자녀의 관심으로 간주한다. 귀국 시

주 전화를 하고 손주들 사진도 보내준다고 말했다. 한국에 가서 살고 싶기도 한데 비자문제가 있어서 안타깝다고 말한 바 있다.

기의 불확실성에도 언젠가는 모든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주지에서 자녀와 손자녀의 더 밝은 미래가 전개 될 수 있다면 귀환이 유예되거나 기약되지 않더라도 노부모들은 이를 수용할 수 있게 자신의 감정과 돌봄 기대를 조정한다.

‘우즈벡 민족주의’로 인한 민족 편향성과 낮은 고용률 및 임금 등 열악한 경제 환경은 고려인 성인 자녀의 국제이주의 배출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부모는 자녀의 한국으로의 이주를 만류할 수 없었다. 최알렉산드로 아버지(71)는 “우즈베키스탄에는 일자리도 없고 있다 해도 월급이 너무 낮는데, 생활비는 오르고 각종 들어가는 돈을 감당할 수 없어서 아들들이 한국으로 간다는 것을 만류할 수 없었다.”고 말한다. 또한 “아들 사는 집에 방 하나만 있는데, 아이가 돌이기 때문에 돈을 벌어서 큰집을 사야는 데,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돈 벌 가능성이 없어서 이들이 한국 간다고 할 때 만류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백세르게이 어머니(65)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불가피한 선택으로 떠나는 자녀의 한국행은 노부모에게는 안타까움이 가득한 큰 사건이었다. 세 명의 딸이 순차적 한국 이주를 했던 최로자의 어머니는 딸들이 우즈베키스탄을 떠날 때마다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몰라” 울었는데, “딸들이 한국말도 못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자유롭게 왕래도 못할 것 같아서” 딸들이 떠난 후 6개월 내내 혼자 울었다. 남겨진 노부모가 일상에서 한국으로 떠난 자녀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는 방식은 다양했다. 최알렉산드로 아버지는 막내아들 최알렉산드로 부부가 살던 집을 매일 아침에 열고서 인방 벽면에 부착된 아들 사진을 보며 “아들아 안녕”이라 혼자서 인사말을 건넨다. 백세르게이 어머니와 최로자 어머니는 특히 집에 혼자 있을 때 떠난 자식이 그리워 자녀와 손자녀 사진을 보면서 혼자 말을 건다. 김그레고리와 박야나톨리아 부모는 자녀들이 보고 싶을 때마다 결혼식이나 환갑잔치 DVD에 등장하는 자녀의 얼굴을 보면서 그리움을 달랜다. 한세르게이 어머니는 아들

부부가 살던 널찍한 아파트 방안을 둘러보면서 함께 지냈던 기억을 떠올리거나 스마트폰 안에 저장된 자녀와 손자녀의 사진을 보면서 그리움을 달랜다. 이 모든 일상에서의 습관은 자녀가 한국으로 국제이주 한 이후 생긴 것들이다.

남겨진 노부모는 일상생활 가운데 자녀의 이주로 생기는 돌봄 공백을 자주 느낀다. 안산에 거주하는 김에르네스트의 어머니(84)는 두 아들이 한국에 간 후 결혼한 딸과 외손녀와 함께 산다. 에르네스트는 한국으로 떠나기 전에는 홀로 계신 어머니를 주마다 찾아가 생활에 불편 사항을 해결해 드렸다. 어머니는 아들 떠난 후 전기나 수도가 고장 날 때마다 아들의 부재를 가장 많이 실감한다고 한다.

아들이 이곳에 있을 때 내 아파트의 전기나 수도가 고장 나면 즉시 와서 고쳐주었다. 지금도 이런 것들이 고장 날 때면 큰아들이 더욱 보고 싶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나를 보러 왔는데, 그래서 늘 오는 날이면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리면 창밖을 내다 봤는데, 이제는 그럴 일이 없어서 무척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김에르네스트 어머니, 84).

최로자 어머니 박나탈리아의 세 딸은 모두 한국에 있다. 10년 전에 고혈압으로 쓰러져 건강이 악화된 후 지금도 1년에 3차례 이상 혈액순환제 주사를 맞아야 한다. 다행히도 딸들이 이주한 후 지금까지 응급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막상 응급상황이 일어나면 곁에서 의사와 앰블런스를 불러줄 사람은 19세의 손녀(이혼한 큰딸의 딸)뿐이다. 22년 전에 남편과 이혼하고 박나탈리아 씨 혼자서 딸들을 키웠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딸들의 애정은 남다르다. 어머니는 곁에서 자신의 건강 등을 자상하게 살피던 둘째 딸 최마리아(32)의 공백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다.

큰딸은 아직도 속을 차리지 못했다. 실수와 질투가 많은 편이다. 원래 책임

져야 하는데 나이 들어도 마찬가지다. 둘째 딸 마리아는 늘 가장 듬직했다. 유난히 내 건강을 자상하게 챙겼던 아이다. 둘째가 부산으로 갔을 때 너무 서운했지만 지금도 마리아는 나에게 또는 내 손녀에게 하루에 세 번씩이나 전화를 해서 나의 건강을 살핀다. 막내 최로자는 아직도 어리기 때문에 크게 의지할 수 없다(박나탈리아, 여, 57).

딸들이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보내지만 박나탈리아에게 더 큰 위로가 되는 것은 매일 오는 딸들의 전화다. 전화를 받으면 딸들이 자신에게 “마음을 쓰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녀처럼 대부분 노부모들은 직접적인 돌봄이 아니더라도 전화나 송금 등의 초국적 돌봄 행위를 통해 자식들이 자신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느낀다고 한다.

남아 있는 노부모는 자녀가 우즈베키스탄에 돌아와 언젠가는 함께 살 수 있다는 바람을 지니고 있었다. 귀환 시기를 짐작하는 노부모도 있지만 그 시기는 막연하다. 김에르네스트 어머니는 큰아들이 한국에 가서 일하는 것은 러시아에서 의과대학원을 다니는 손주(김에르네스트 둘째아들)의 비싼 학비와 생활비(1년 약 600만 원 학비와 매월 약 10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알고 있다. 따라서 어머니는 손주의 공부가 끝나면 아들 김에르네스트도 귀국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2015년 1월 안산에서 만난 김에르네스트는 2015년 11월에 둘째아들의 학업이 끝나면, 우즈베키스탄의 큰아들부부와 부인까지 한국으로 초청해 최소한 향후 5년 이상 한국에 체류할 계획을 연구자에게 말해주었다. 그간 한국에서 번 돈을 모두 러시아의 아들에게 보내서 자신의 수중에 모아 놓은 돈이 없다는 것이다. 김에르네스트처럼 대부분의 고려인 성인자녀는 자신의 귀국 시기를 명확히 정해 놓지 않았다. 한국 국내에서 체류를 간단히 연장할 수 있는 F-4비자를 소지한 사람은 조속한 귀국을 강요받지 않고 본인 스스로도 조속히 귀국할 생각이 없었다. 김에르네스트는 현재 어머니를 돌보고 있는 여동생이 미국 남편을 부름

을 받아 미국으로 떠날 계획이기 때문에 향후에 어머니도 한국으로 모셔올 계획이다.

타슈켄트의 김그레고리 부모님은 한국인과 결혼한 큰딸과 막내딸이 아닌 아들인 김그레고리가 자신들과 함께 살 것인데, 아들의 귀국 시기는 예측하기 힘들지만 아주 늦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광주에 있는 김그레고리의 본국 귀국은 가까운 시일 내에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그의 아들(6세)을 고려인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새날어린이집’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일반 어린이집으로 옮긴 그의 태도가 이를 짐작케 한다.

아들이 큰누나(한국인과 국제결혼 함) 아이들과 만나면 한국말을 못해 함께 놀 수 없어서 늘 속상했다. 아들이 어차피 한국에서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더 높은 과정의 학교를 다녀야 하는데 한국말을 잘 해야 한다. 새날어린이집에서는 러시아말로 아이들과 놀기 때문에 한국말이 늘지 않았다. 내 아들은 여건이 훨씬 좋은 한국에서 오래 살면서 교육을 많이 받게 하고 싶다.

이처럼 김그레고리는 아들이 한국의 더 좋은 환경에서 많은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 한국에서 상당 기간 살 것을 예고한다. 타슈켄트에서 만난 김그레고리 아버지를 비롯해 대부분 고려인 노부모는 한국을 잘살면서 시스템이 잘 갖춰진 나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노부모들은 자녀의 한국 이주 전과는 달리 한국 관련 뉴스에 귀를 기울이게 됐다. ‘연평도 사태’처럼 한국의 위기 관련한 뉴스를 접하면서 이들은 한국의 자녀들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한다. 이런 위기 상황에 직면하면 자녀의 조속한 귀국을 원하지만, 경제적으로 여건이 호전될 전망이 거의 보이지 않는 우즈베키스탄보다 한국에서 자녀와 손자녀의 미래가 밝다면,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살겠다면 이들은 이런 현실을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하고 있다.

한국에 모든 형제자매가 체류하는 일부 고려인 자녀들은 본국의 노

부모를 한국으로 모셔올 계획을 세운다. 그러나 이러한 자녀들의 제안을 수용할 준비되어 있는 노부모보다 현재처럼 우즈베키스탄에 머물면서 자녀와의 초국적 관계의 유지에 만족하는 노부모가 더 많다. 일부 노부모들은 한국어도 모르고 기후도 다르며 내 것이 없는 한국에서 특히 영주권이나 국적을 받기 어려워 방랑자로 지내는 것을 선호하지 않아 보인다. 이들은 현재처럼 자녀의 초국적 돌봄을 받으며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필요할 때마다 손자녀를 돌봐주는 초국적 삶을 ‘가족의 생애주기’에 따른 돌봄의 순환으로 이해하고 있는 듯 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손자녀를 돌보고 자녀의 살림살이를 돕기 위해 한국으로 오는 고려인 노부모의 비율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성인자녀와 노부모 간의 돌봄 교환이 필요한 맥락, 예컨대 딸과 며느리의 출산을 돕고, 손자녀를 돌보면서 자신의 노년의 삶을 초국적 사회적 장에서 보내는 고려인의 노인 수가 점차 늘어갈 전망이다.

6. 맺음말

한국으로의 이주 후 고려인 성인자녀의 우즈베키스탄에 남겨진 노부모에 대한 돌봄은 초국적 성격을 띠고 있다. 소련시절 사회주의 정책과 우즈베크 민족 등 다른 민족들과의 상호작용에 크게 노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에 대한 공경이나 가족원들 간의 유대관계의 중요성이 고려인 사회에 상당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 노인 인구에 대한 의료 및 사회복지정책이 취약한 우즈베키스탄 경우 노부모에 대한 돌봄은 가족과 친족원의 몫이 된다. 국제이주의 맥락에서 본국에 남아 있는 노부모에 대한 초국적 돌봄은 흔히 송금과 정서적 지지 및 상호 방문과 한국초청의 형식으로 수행된다.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 송금은 소규모 연금에 의존하는 노부모의 의

료비용, 돌·결혼·환갑잔치에 필요한 의례비용, 생활수준 향상과 복지비용에 실제적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국제전화·화상전화·SNS를 이용한 문자와 사진전송 등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노부모에 대한 규칙적인 자녀의 정서적 지지는 물질적 지원 못지않게 중요한 초국적 돌봄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막대한 경비와 시간이 요구되는 우즈베키스탄 방문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주 자녀들은 가족의 통과의례 참여와 이민관련 서류처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본국 방문을 노부모에 대한 직접적인 돌봄 기회로 삼고 있다. 본국 방문 외에 한국 체류 기간이 장기화 되면서 한국으로 초청되어 장단기 성인자녀와 체류하면서 돌봄을 받는 노부모가 늘고 있다. 특히 노부모의 심각한 질병의 발병과 성인자녀의 출산 등 삶의 위기 상황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노부모의 사례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는 초국적인 상황에서 노부모 돌봄이라는 규범이 구성되고 타협되는 방식을 규명하고자 했다. 국제이주의 맥락에서 이주자 자녀의 현금과 시간 동원능력, 노부모 돌봄을 위해 한국과 다른 국가에 이산되어 있는 초국적 가족 및 우즈베키스탄에 남아 있는 확대가족 네트워크 등의 미시적 요인들이 자녀와 부모의 국경을 넘는 일에 관계되는 출입국에 관한 법률 및 이민정책, 기존의 국제 관계의 성격, 국가 의료 및 복지체계의 수준 등 거시적 요인들과의 조합을 통해 본국에 남아 있는 부모에 대한 초국적 돌봄 활동이 협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또한 자녀들의 국제이주가 노부모에게 남겨진 정서적 결과, 가족재결합, 초국적 노년의 삶 등을 우즈베키스탄에 남아 있는 노부모의 시각에서도 이해하고자 하였다. 특히 가족의 생애주기의 한 과정으로서 한국의 성인자녀와 노부모와의 한국에서의 재결합이 점차 늘어가는 추세에서, 성인자녀와 노부모의 돌봄은 일방적인 성격이 아닌 세대를 횡단하는 호혜적인 순환의 성격임이 부각되고 있다. 이 연구는 기존의 ‘전 지구적 돌봄 고리’의 개념을 토대로 수행된 초국적 돌봄에 대

한 연구가 가족의 결속을 저해하는 계기가 되는 ‘문제적 사건’으로 바라 보는 것과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자 했다. 국제이주의 맥락에서 세대, 이주자와 비이주자, 거주 국가, 연령 등에 구애받지 않고 돌봄이 초국적으로 확장된 가족과 친족 네트워크 내에서 순환되는 것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현재 전개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국제이주, 부모에 대한 초국적 돌봄, 가족재결합 등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양상은 가족 결속을 해치는 문제적 사건이라기보다는 해당 고려인들이 개인·가족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한국과 본국에서 이용 가능한 자원과 구속 요인 등에 따른 특정한 형식의 전략적 산물들로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진행 중인 성인자녀와 노부모의 호혜적 돌봄 순환에 작용하고 있는 중요 요인의 하나가 재외동포에게 제공하는 개방된 출입국 정책과 같은 거시적 수준의 요인임은 분명하다. 특히 광주광역시 ‘고려인가족 지원센터’를 비롯한 민간차원의 지원 단체와 지방정부 차원²⁵⁾의 고려인에 대한 높은 관심은 한국의 성인자녀와 가족재결합 하는 노부모가 포함된 ‘다 세대’ 고려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가족의 생애주기에 따라 한국에서 재결합된 고려인 가족의 수가 늘어가는 등 국내 고려인 인구의 급증에 따라 국내의 고려인 지원 단체들은 고려인의 사회복지의 영역이 확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²⁶⁾ 고려인 초국적 가족이 물리적인 가족 분거의 상황에서도 노부모에 대한 초국적

25) 2015년 9월에 ‘고려인가족지원센터’ 새 건물은 광주광역시 기업인, 시민, 지자체 등의 후원금 약 2억5천만 원으로 개원하였다. 고려인 중도 입국자녀의 수가 급증하여 정부위탁교육기관인 ‘새날학교’뿐만 아니라 광산구 내 초등학교가 이들 자녀들을 수용하고 있다. 아직은 구체적인 지원은 눈에 띄지 않지만 2013년에 전국 최초로 ‘광주광역시 고려인주민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지자체의 재원이 고려인을 위해 공식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갖추어져 있다.

26) 민간차원의 지원과 지자체 차원의 지원의 결합의 산물로 ‘광주광역시 고려인주민 지원조례’가 2013년에 국내 최초로 제정되었으며, 경기도 안산과 광주광역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려인 지원 단체들은 ‘재외동포의 국내체류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고려인동포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와 이를 통한 고려인의 사회보장 영역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돌봄의 필요성에 전략적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이러한 점이 고려인 초국적 가족 구성원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돌봄 문제를 온전히 고려인 가족에게만 떠맡기라는 말은 아닐 것이다. 사실 초국적 상황에서 본국의 노부모를 돌보는 일 등 가족의 유대를 유지하는 일은 많은 시간과 재원이 소비되고 정서적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을 수반한다.

최근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가족 가운데 이주자 없는 가족을 찾기 힘들게 되어 ‘초국적 가족’은 고려인의 전형적인 가족의 형태가 되었다. 고려인 초국적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연결을 강고하게 유지시켜 주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초국적 가족과 친족 네트워크 내에서 순환하는 ‘초국적 돌봄’이란 문화적 힘이다(김경학 2015: 62). 한국 내 고려인 사회에 성인자녀의 돌봄을 근거리에서 받으면서 동시에 손자녀에 대한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조부모 세대가 포함된 다 세대 고려인 가족의 형태가 점차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 다 세대 고려인 가족 가운데 한국어 구사능력의 결핍과 사회적 관계의 단조로움, 가족 내 자원과 권위 등을 둘러싼 세대 간 긴장, 낯선 세계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 때문에 우즈베키스탄으로의 귀환을 원하는 노부모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우여곡절 끝에 우즈베키스탄에 남겨진 미성년 자녀와 한국에서 가족재결합이 성사되었지만 한국의 재외동포에 대한 법률과 제도로 인해 한국에서 재결합한 가족이 분거상황을 맞이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한다.²⁷⁾ 이와 같이 고려인 초국적 가족원들이 수행하는 노부모와 자녀에 대한 초국적 돌봄은 앞서 언급된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적극적인 형태로 실천될 수 있지만, 이러한 돌봄 실천에는 여전히 개인적이거나 제도적인 차원의 기회와 제약으로 인한 물질적이고 정서적인 어려움이 수반

27) 광주광역시에 있는 김발레르(남, 52)는 재외동포비자(F-4)를 취득한 후 우즈베키스탄의 네 명의 자녀들을 한국으로 불러 가족재결합을 했다. 현행법 상 만 19세가 된 고려인 동포는 본국으로 귀국해 만 25세가 되던 해에 방문취업비자(H-2) 또는 F-4 비자를 취득하여 한국에 입국할 수 있다. 김발레르 씨의 아들 김블라직은 만 19세가 되자 모든 가족이 한국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가야 함으로써 가족 모두 이별의 아픔을 다시 경험해야 했다(이천영 2014: 28).

될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논문접수일: 2015년 11월 25일, 논문심사일: 2015년 12월 21일, 게재확정일: 2016년 1월 3일

참고문헌

강유진

2009 “기러기 가족의 초국적 적응전략 및 가족경로,” 『한국지역사회생 활과학지』 20(2): 205-221.

김경학

2014a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한국 이주와 정착: 광주 ‘고려인마을’을 중 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7(4): 259-282.

2014b “국내 네팔 이주노동자의 ‘초국적 가족유대,’” 『남아시아연구』 20(2): 25-57.

2015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한국 이주와 가족유형의 성격: 광주광역 시 고려인 사례를 중심으로,” 『디아스포라연구』 9(2): 37-67.

김선미

2009 “‘기러기엄마로 살기’: 일상생활의 구성 그리고 관계 맺기,” 『한 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3(1): 41-59.

김엘레나

2014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통과 의례에 관한 연구: 혼인, 돌잔치, 장례식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술·홍인화

2013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광주지역 이주와 문화변용에 관한 연구,” 『디아스포라연구』 7(1): 131-161.

김용환

1999 “가족과 친족생활,” 『우즈베키스탄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서울: 국

립민속박물관.

김재기

2014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 귀환 고려인의 이주배경과 특성,” 『재외한인연구』 32: 139-163.

김혜신

2014 『글로벌 이주와 초국가적 가족유대』, 서울: 이담북스.

리화

2012 “국경을 초월하여 공생하는 조선족 가족: 한국이주노동으로 인한 분산거주 경험을 중심으로,” 『중앙사론』 36: 497-534.

단효홍 · 김정학

2015 “광주지역 한족 결혼이주여성의 초국적 가족유대,” 『디아스포라 연구』 9(1): 265-287.

박경환 · 백일순

2012 “조기유학을 매개로 한 분절가구 초국적 가족의 부상,”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4(1): 17-32.

박홍주

2009 “이주여성 가사노동자의 경험을 통해 본 돌봄노동의 의미구성과 변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오정은 · 강희영 · 성동기

2014 『한-CIS 관계증진을 위한 CIS출신 동포 활용방안: 국내체류 경험 고려인을 중심으로』, IOM 이민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이정옥

1996 “중앙아시아 한인 가족 구조의 변화,” 『중앙아시아 한인의 의식과 생활』(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48), 서울: 문학과지성사. pp. 133-164.

이은정

2015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귀환이주: 대구지역 고려인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18(1): 219-249.

이천영

2014 “국내체류 고려인동포에 대한 정책방향,” 『‘재외동포의 국내 체류

지원' 정책토론회 발표집』, pp. 27-30.

장준희

2011 “중양아시아 고려사람의 공동묘지에 나타난 문화 정체성,” 『한국 문화연구』 21: 201-236.

쓰지모토 도시코

2012 “글로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돌봄 노동의 의미변화: 필리핀 이주 노동자에 주목하여,” 『아시아저널』 6: 168-189.

채수홍

2014 “호치민 한인 공장매니저의 초국적인 삶: 일터와 거주생활공간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20(2): 47-94.

허(오)영숙

2013 『결혼이주여성의 본국 가족 지원』, 서울: 한울아카데미.

Al-Ali, N.

2002 “Loss of Status or New Opportunities? Gender Relations and Transnational Ties among Refugees,” in D. Bryceson and U. Vuorela, eds., *The Transnational Family: New European Frontiers and Global Networks*, New York: Berg, pp. 83-102.

Baldassar, L.

2007 “Transnational Families and Aged Care: The Mobility of Care and the Migrancy of Aging,”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33(2): 275-297.

2008 “Debating Culture across Distance: Transnational Families and Obligation to Care,” in R. Grillo, ed., *The Family in Question: Immigration and Ethnic Minorities in Multicultural Europe*, Amsterdam: Amsterdam University Press, pp. 269-291.

Baldassar, L. and Baldock, C. V.

2000 “Linking Migration and Family Studies: Transnational Migrants and Care of Ageing Parents,” in Biko Agozino, ed.,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Issues in Migration Research: Interdisciplinary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 Aldershot: Ashgate, pp. 61-89.

- Baldassar, L., C. V. Baldock and R. Wilding
 2007 *Families Caring across Borders: Migration, Aging and Transnational Caregiving*, London: Palgrave Macmillan.
- Baldassar, L. and Laura Merla(eds.)
 2014 *Transnational Families, Migration and the Circulation of Care: Understanding Mobility and Absence in Family Life*, New York: Routledge.
- Baldock, C. V.
 2000 "Migrants and Their Parents," *Journal of Family Issues* 21(2): 105-128.
- Bryceson, D. and U. Vuorela
 2002 "Transnational Family: In the Twenty First Century," in D. Bryceson and U. Vuorela, eds., *The Transnational Family: New European Frontiers and Global Networks*, New York: Berg, pp. 3-30.
- Dreby, J.
 2006 "Children and Power in Mexican Transnational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9: 1050-1064.
- Erel, U.(ed.)
 2012 "Special Issue: Transnational Care in Europe: Changing Formations of Citizenship, Family, and Generation," *Social Politics: International Studies in Gender, State & Society* 19(1): 1-14.
- Escriva, A. and E. Skinner
 2008 "Domestic Work and Transnational Care Chains in Spain," in Helma Lutz, ed., *Migration and Domestic Work: A European Perspective on a Global Theme*, Farnham, Burlington: Ashgate, pp. 113-126.
- Gardner, K.
 2002 "Death of Migrant: Transnational Death Rituals and Gender among British Sylhetis," *Global Networks* 2(3): 191-204.

Gouldbourne, H. and M. Chamberlayne

- 2001 *Caribbean Families in Britain and the Trans-atlantic World*, Basingstoke: Macmillan.

Hochschild, A. R.

- 2000 “Global Care Chains and Emotional Surplus Value,” in Will Hutton and Anthony Giddens, eds., *On the Edge, Living with Global Capitalism*, London: Vintage, pp. 130-146.
- 2005 “Love and Gold,” in Luciana Ricciutelli, Angela Miles and Margaret McFadden, eds., *Feminist Politics, Activism and Vision: Local and Global Challenges*, Toronto: Zed/Innana Books, pp. 34-46.

Huang, S., B.A. Yeoh and M. Toyota

- 2012 “Caring for the Elderly: the Embodied Labour of Migrant Care Workers in Singapore,” *Global Networks* 12(2): 195-215.

Mason, J.

- 1999 “Living Away from Relatives: Kinship and Geographical Reasoning,” in S. McRae, ed., *Changing Britain: Families and Households in the 1990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156-175.

Merla, L.

- 2012 “Salvadoran Migrants in Australia: an Analysis of Transnational Families’ Capability to Care Across Borders,” *International Migration*, Published Online.

Olwig, K. F.

- 2002 “A Wedding in the Family: Home Making in a Global Kin Network,” *Global Networks* 2(3): 205-218.

Parrenas, R. S.

- 2001 *Servants of Globalization: Women, Migration and Domestic Worker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2005 “Long Distance Intimacy: Class, Gender and Intergenerational Relations between Mothers and Children in Filipino Transnational

Families,” *Global Networks* 5(4): 317-336.

Ryan, L.

2011 “Transnational Relations: Family Migration Among Recent Polish Migrants in London,” *International Migration* 49(2): 80-103.

Sorensen, N.N. and L.G. Guarnizo

2007 “Transnational Family Life Across the Atlantic: The Experience of Colombian and Dominican Diaspora,” in J. Besson and K. F. Olwig, eds., *Living Across Worlds: Diaspora, Development and Transnational Engagement*, Geneva: IMO, pp. 151-176.

Thomas, C.

1993 “Deconstructing Concepts of Care,” *Sociology* 27: 67-82.

Treas, J.

2008 “Transnational Older Adults and Their Families,” *Family Relations* 57: 468-478.

Vullnetari, J. and R. King

2008 “‘Does Your Granny Eat Grass?’ On Mass Migration, Care Drain and the Fate of Older People in Rural Albania,” *Global Networks* 8(2): 139-171.

Wilding, R.

2006 “Virtual Intimacies? Families Communicating across Transnational Contexts,” *Global Network* 6(2): 125-142.

Yeates, N.

2009 *Globalizing Care Economies and Migrant Workers: Explorations in Global Care Chains*,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2012 “Global Care Chains: A State-of-the-art Review and Future Directions in Care Transnationalization Research,” *Global Networks* 12(2): 135-154.

Zechner, M.

2008 “Care of Older Persons in Transnational Settings,” *Journal of*

Aging Studies 22: 32-44.

Zontini, E. and T. Reynolds

2007 “Ethnicity, Families and Social Capital: Caring Relationships across Italian and Caribbean Transnational Families,” *International Review of Sociology* 17(2): 257-277.

자료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0년~2015년 『통계연보』,” <http://www.immigration.go.kr>

Parpiev, Z., “Who Is Behind Remittances? A Profile of Uzbek Migrants,” 2015. 03. 05. <http://www.undp.org>

〈Key concepts〉: transnational migration, transnational family, transnational care, Uzbekistan *Koryein*, aged parents, multi-sited field works

Transnational Care for Left-Behind Aged Parents Living in Uzbekistan:

A Case of *Koryein* Migrants in Gwangju Metropolitan

Kim, Kyunghak*

This study aims at exploring transnational care for left-behind aged parents living in Uzbekistan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Uzbek *Koryein*’ (Korean ethnic group in Uzbekistan) migrants in Korea. The post-Soviet Union mass emigration of ‘Uzbek *Koryein*’ takes place mainly due to harsh conditions like economic hardship and Uzbek ethno-religious nationalism. The aged parents of members of transnational ‘Uzbek *Koryein*’ families can remain in need of help and care when their adult children migrate to Korea. Most ‘Uzbek *Koryein*’ migrants in Korea maintain their transnational family ties with their left behind older family members on the bases of some transnational care practices like remittances, virtual intimacy through ICTs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technologies), and visit to homeland.

* Professor, Department of Anthrop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is research also tries to listen to the later lives, experience, and feelings of aged parents left-behind after their adult children's emigration since many research tend to overlook the perspectives of elderly generations on international migration and exchange of care among the transnational family members.

Because of the Uzbekistan's longstanding economic deterioration, migration has become an essential livelihood strategy among many 'Uzbek *Koryein*' families. The monetary remittances of 'Uzbek *Koryein*' in Korea highly contribute to the wellbeing of their family members, especially older members in terms of medical treatment and promotion of living standard. This study clearly shows that because relying on Uzbekistan state aged-care services is perceived by most 'Uzbek *Koryein*' as not being adequately, the aforementioned transnational cares practiced by adult children of 'Uzbek *Koryein*' in Korea become pivotal for main avenue of care-giving activities for their aged parents in homeland.